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상담개입 프로그램 개발 -대인관계 증진을 중심으로-

책임연구자 : 최보영

공동연구자 : 김현아

최연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청소년상담연구 168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상담개입 프로그램 개발 - 대인관계 증진을 중심으로 -

인 쇄 : 2012년 12월

발 행 : 2012년 12월

발 행 인 : 구 분 용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00-882)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T. (02)2250-3073 / F. (02)2250-3005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신일기획

비매품

ISBN 978-89-8234-508-1 94330

ISBN 978-89-8234-001-7(세트)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상담개입 프로그램 개발 : 대인관계 증진을
중심으로 / 책임연구자: 최보영 ; 공동연구자: 김현아, 최연우. --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2
p. ; cm. -- ((2012) 청소년상담연구 ; 168)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됨
ISBN 978-89-8234-508-1 94330 : 비매품
ISBN 978-89-8234-001-7(세트) 94330

탈북자[脫北者]
청소년[靑少年]

338.5-KDC5
362.7-DDC21

CIP2012005854

간행사

북한에서 남으로 귀순하는 용사들이 TV 방송을 땀던 1990년대와는 달리, 근래에는 연간 2,000여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입국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는 약 2만여 명이 넘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남한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식량난의 고통 및 체제불신의 이유 뿐 아니라, 자녀에게 더 많은 기회와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북을 떠나 남으로 향하는 가족 단위의 입국자가 증가하면서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의 수도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기존의 사회를 떠나, 전혀 다른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곳에서 적응하며 살아가기란 성인들에게도 힘든 일이지만, 아직 자아정체성이 명확히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더 버거운 일일 것입니다. 탈북 및 입국 과정에서 겪었던 충격과 공포를 비롯하여, 남북한 학력 및 언어의 차이, 문화적 이질감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기에 성인들보다 더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리라 예상됩니다.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법적·제도적 지원이 제공되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적 측면에서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생활적응과 심리적 성장을 위해 이들의 독특한 특성이 반영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청소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이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반영된 전문적인 상담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양한 상담영역 중,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상담요구도 및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인관계증진을 목표로 개인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및 사회적 상황에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타인과 신뢰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히 본 프로그램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들과의 관계형성을 돕고 성공적인 상담효과를 이끌기 위해, 상담자들을 위한 교육 매뉴얼도 제공하고 있으며, 대인관계 영역 이외의 주요 상담 영역에서 상담자들이 사용할만한 다양한 정보 및 상담진행 방법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담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연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서울사이버대학교 김현아 공동연구진을 비롯하여, 본원의 최보영 박사, 최연우 선생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

립니다. 또한 신분노출에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원의 연구를 위해 심층면접에 참여해준 북한이탈청소년들과, 연구를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흔쾌히 자문에 응해 주신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실무자 및 전문가 선생님들, 그리고 「북한인권정보센터」 한선영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노고와 도움을 통해 개발된 본 연구가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역량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12년 12월

원장 구본용



초 록

북한이탈 주민의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가 증가하며 현재는 약 2만 명에 가까운 북한이탈 주민들이 남한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듯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의 규모와 더불어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의 입국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이들 중 상당수가 불안감과 열등감, 정체감의 혼란으로 인해 부적응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적응 양상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정규 교육과정 중도 탈락률이 일반 학생보다 높은 것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기에 겪어야 할 발달단계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기존과는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사회에서 적응해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특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입국 추세와,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북한이탈청소년의 미래를 고려한다면,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특성화된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은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순탄하지 않았던 남한 입국과정을 겪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반영된 전문적인 상담 개입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한다. 즉 일반적인 청소년들이 달성해야하는 발달과업의 달성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문화적응을 동시에 해야 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성장과 남한생활의 적응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제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청소년의 상담요구도 조사 및 현장전문가와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생활적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요소를 도출하여 상담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실무자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평가한 후 내용을 수정·보완한다.

연구 과제 달성을 위해 기획단계, 구성단계, 실행 및 평가의 단계를 거쳐 프로그램 개발하였다. 기획단계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황 및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연구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입요소 및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실무자와 상담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 직접 수혜자인 북한이탈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해 결과를 분석하여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남한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요소와, 상담 시 상담자가 고려해야할 주요 내용들을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생활 적응 영역 중,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현장의 요구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과도 맥을 같이 하는 주제로 판단되어 북한이탈 청소년의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개인상담 매뉴얼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성단계에서는 앞선 인터뷰 결과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4가지의 요소를 추출할 수 있었다. 첫째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배경 및 특징과 관련하여 상담자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역량강화를 위한 상담자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정보로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기본지식, 상담자 태도 및 역할 등이 포함되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매뉴얼과는 별도로 상담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매뉴얼을 준비하였다. 둘째는, 남한에 입국한 기간에 따라 적응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선정 시 정착시간을 고려하여 남한 정착 후, 3년 이내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북한이탈 청소년이 호소하고 있는 문제유형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문제영역을 탐색할 수 있는 리스트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상담접근에 대한 Tip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의 기본 접근은 인지행동 접근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역기능적 역할을 하는 인지내용을 탐색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대인관계 능력과 장기적인 사회 적응 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사회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내용도 첨가하였다. 이러한 구성 원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초안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수혜자의 이해도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탈 청소년의 도움을 받아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받아볼 워크북에 실린 언어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실행 및 평가단계에서는 18명의 상담실무자 및 상담전문가를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진행하고, 이 후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세부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교육 후에 참여자 관점 평가를 실시하여 매뉴얼의 시의 적절성, 목적성, 실효성, 효과성, 현장기여도를 평가받았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 연구전문가와 현장전문가에 의한 프로그램 내용타당도를 평가받았는데, 본 매뉴얼의 시의적절성, 목적성, 유익성, 실용성, 효과성, 현장기여도에 관한 참여자 관점 평가 결과, 5점 만점 중, 평균 4.6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상담실무자 및 상담 연구전문가가 제시해준 의견들을 종합하여 연구보고서와 매뉴얼을 수정·보완하고 학계전문가의 감수를 받아 프로그램을 완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다. 연구과정을 통하여 북한이탈 청소년과 실무자의 실제 경험과 이들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향후 북한이탈 청소년의 이해 및 상담적 접근에 있어 다양한 시사점과 의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상담 프로그램을 향후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I. 서 론 | 1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 2. 연구의 과제 4

II. 이론적 배경 | 5

- 1.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이해 5
- 2.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 14
- 3.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체계 25
- 4.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고찰 35

III. 연구방법 | 41

- 1. 프로그램 개발 절차 모형 41
- 2. 프로그램의 개발과정 42
 - 가. 기획단계 42
 - 나. 구성단계 56
 - 다. 프로그램 평가단계 63
 - 라.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74

IV. 요약 및 논의 | 78

참고문헌 | 84

부 록 | 93



| 표

표 1. 북한이탈 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6
표 2.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 수 현황	6
표 3. 북한이탈 청소년 재학 현황	7
표 4. 북한이탈 청소년 중도탈락 현황	7
표 5. 최근 4년간 중도탈락 사유별 현황(2011년 4월)	8
표 6. 교육과학기술부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지원계획의 주요 내용	30
표 7.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33
표 8. 북한이탈주민 이동 및 청소년 대상 상담프로그램의 선행연구	38
표 9.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심층면접에 사용된 질문내용	43
표 10. 면접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45
표 11.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심층면접에 사용된 질문내용	52
표 12. 면접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53
표 13. 프로그램 내용	61
표 14. 시범교육 구성	64
표 15. 참가자 관점 평가도구의 세부 내용	65
표 16. 상담매뉴얼 내용 및 구성 평가 결과	66
표 17. 구성영역별 평가 결과	67
표 18. 상담매뉴얼 현장활용도 평가 결과	67
표 19. 상담매뉴얼에 대한 종합 의견	68
표 20. 구성영역별 의견	69
표 21. 상담매뉴얼 현장활용도에 대한 전문가 2인 평가 결과	71
표 22. 전문가평가 종합의견	72
표 23. 상담자 및 전문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정된 내용	75



I 그림

그림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 정착 지원체계	26
그림 2. 교육과학기술부의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추진체계	29
그림 3.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사업 흐름	31
그림 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 체계도 (국회예산정책처, 2012)	33
그림 5. 프로그램 개발 모형 (김창대, 2002)	41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매년 10명 내외에 불과했던 북한이탈 주민의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가 증가하며 현재는 약 2만 명에 가까운 북한이탈 주민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2011년 기준). 북한이탈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식량부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1990년대 들어 심각해진 북한의 경제난이 1995년부터 연이어 겪은 물난리로 인해 대규모의 아사자가 속출하는 극심한 식량난을 겪게 되면서 북한이탈자의 수가 급증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근래에는(2000대 이후)에는 외부정보의 유입으로 인한 체제불신과 자유 및 미래에 대한 꿈의 실현 등으로 탈북의 동기가 변화하면서,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북한이탈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조천현, 2002).

북한이탈의 동기가 변화하고 있듯이,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남성이 단독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과는 다르게, 근래에는 다양한 계층의 북한이탈 주민이 입국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단위 입국에 따른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입국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2011년 기준) 남한에는 총 19,531명의 북한이탈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 중, 6세에서 20세의 아동·청소년의 수는 3,038명으로 전체 북한이탈 주민의 1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부모 및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남한에 가족이 없는 무연고 청소년들도 약 450명에 이르고 있다.

어렵게 북한을 벗어나, 중국 및 제 3국을 거치는 길고 험난한 여정을 겪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다시 복송되는 건 아닌지, 낯선 남한 문화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등에 대한 불안감(강성록, 2000; 홍순혜, 2003, 김진섭, 2004)과 문화 및 학력 차이로 인한 열등감(이기영, 1999; 이선윤, 2005), 그리고 또래와는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정체감의 혼란(전우택, 1999; 최명선, 최태산, 강지희, 2006) 등의 심리적 특성을 보인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많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북한과는 상이하게 다른 남한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 학업 및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부적응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김미숙, 2004; 백혜정, 길은배, 윤인진, 이영란, 2006; 정병호, 양계민, 이향규, 임후남, 황순택, 2007).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부적응을 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정규 교육과정 중도 탈락률이다. 2009년 기준 북한이탈 청소년의 정규 교육과정 중도 탈락률은 8.8%로 일반 학생 대비 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원혜영, 2009). 중도탈락의 양상도 학급이 높아질수록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중학교의 중도 탈락률은 8.5%, 고등학교 중도 탈락률은 9.1%로 학급이 높아질수록 중도 포기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달단계상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하고 성인기를 준비해야하는 청소년기를 겪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우, 기존의 삶과는 사회·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새로운 곳에서 적응도 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으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특별히 요구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급증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착 및 지원은 크게 통일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통일부에서는 학생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하나원을 중심으로 약 8주간의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북한이탈 청소년이 증가한 2000년 중반 이후에는 전문 인력 및 시설 등의 부족으로, 특성화 학교인 삼죽초등학교와 한겨레중고등학교를 통해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하나원의 적응교육 수료 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를 통해 무연고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통일부 자체가 관할하는 별도의 전국적인 실행조직이 없기 때문에 연속적 정책 실행에 어려움이 많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주로 학력인정 및 교육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2008년 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북한이탈 청소년은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학력심의위원회 또는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각급 학교의 심의를 통해 남한 입국 이전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교육비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의 지원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공모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지원하기에는 아직 체계성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에서의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업무는 2006년 4월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구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전담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직접적인 지원에는, 하나원 재원 청소년들에 대한 방문교육 및 방과 후 교육, 비교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된 정착초기 지원사업이 있다. 남한사회 도착부터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장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며, 다양한 연계망을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의 안정적 적응과 심리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또한 전국적인 지원망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전

문적인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심리적 측면의 개입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 주민 및 청소년들의 심리적 측면의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2010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북한이탈 주민 전문상담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상담, 의료, 교육, 복지, 취업지원 등 전문적인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성된 인력으로, 현재 105명이 선발되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청소년만이 아닌 2만여 명에 가까운 북한이탈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렇듯,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정책들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심리·내적인 측면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체계 및 전문가는 부재한 실정이다.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의 부재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프로그램 또한 많지 않다. 지금까지 개발되어진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북한이탈 아동 대상의 미술치료(김정미, 2008; 변미희·강기정, 2005) 및 음악치료(정현정, 2009)와 같은 매체치료가거나 멘토링(전명희, 2011)이나 학습, 진로와 관련된 주제(허은영·강혜영, 2010) 등으로 국한되어 있다. 이는, 상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비밀보장 및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등과 같은 상담의 장애요인을 보이는 북한이탈 주민의 특성(김성희, 김현아, 2005)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입국 추세와,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북한이탈 청소년의 미래를 고려한다면,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특성화된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은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탄치 않은 남한 입국과정을 겪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반영된 전문적인 상담 개입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한다. 즉 일반적인 청소년들이 달성해야하는 발달과업의 달성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문화적응을 동시에 해야 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성장과 남한생활의 적응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전국적인 연계망을 갖추고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문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문제 해결 및 역량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과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북한이탈청소년의 상담요구도 조사 및 현장전문가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생활적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요소를 도출하여 상담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실무자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평가한 후 내용을 수정·보완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이해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생활적응 증진을 위한 상담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의 개념과 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개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은 북한이탈 청소년을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에 속하는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남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 2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남한 청소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북한이탈 청소년을 규정하는 것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 19세보다 많은 24세를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장창호, 2001; 길은배 외, 2003; 김연희 외, 2009).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우, 북한의 체제 아래 성장했다는 점이나 탈북 과정 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과 같은 사회적, 심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양친, 혹은 부모 중 한 명이 북한 출신으로 북한과 제 3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연구대상에 포함한다.

나. 현황 및 유형

1) 북한이탈 청소년의 입국현황 및 남한 적응유형별 현황

199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난으로 발생한 식량난은 북한 내 사회불안을 고조시켰고,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급속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이를

수록 개인보다는 가족 단위의 입국이 늘어남에 따라 북한이탈 청소년의 수도 더불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 5월 북한이탈 청소년 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에 열 명 남짓하던 남한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 청소년 수가 2002년도에 이르러서는 100명을 넘어섰고 그 이후 꾸준하게 증가해왔다. 통계에 따르면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은 3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1>은 북한이탈 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을 보여준다.

표 1. 북한이탈 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전체 입국자수	72	148	312	58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423	19,531
6-20세 입국자수	12	22	60	124	211	220	330	224	336	378	464	321	3,068

(교육과학기술부, 2011)

표 2.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 수 현황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남	5	8	19	35	16	25	12	9	15	11	9	13	177
여	0	1	0	19	22	25	18	20	39	44	41	35	275
계	5	10	29	54	38	50	30	29	54	55	50	48	452

(교육과학기술부, 2011)

<표 2>에 드러난 바와 같이 남한에 직계가족이 없는 20세 미만의 미성년 북한이탈 청소년들 역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성별에 따른 현황을 살펴보면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수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다른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달리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하늘꿈학교' 나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 학교' 등과 같은 기숙보호시설에서 지내게 된다.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는 다른 탈북자들에 비해 더욱 취약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의 남한생활 적응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생활에 적응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남한 교육에 편입된다. <표 3>은 2011년 4월 기준 정규학교 및 대안교육 시설에서 재학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 현황을 보여준다. 대안교육 시설보다는 정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가 약 90%로 월등히 높은 편이다. 이는 대안교육 시설 못지않게 정규학교에서도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생활 적응을 위한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표 3. 북한이탈 청소년 재학 현황

구분	정규학교						전일제대안 교육 시설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재학 현황	493	527	161	127	169	204	186 (10%)	1,867 (100%)
	1,020(60.7%)		288(17.1%)		373(22.2%)			
	1,681(90%)							

(교육과학기술부, 2011)

※대안교육시설은 전일제 민간교육시설에서 수학하는 학생임(2011년 4월 기준)

표 4. 북한이탈 청소년 중도탈락 현황

구분		초	중	고	계
2007년도	4월 재학생수	341	232	114	687
	중도탈락생 수	12	30	32	74
	중도탈락률(%)	3.5	12.9	28.1	10.8
2008년도	4월 재학생수	495	288	183	966
	중도탈락생 수	7	26	26	59
	중도탈락률(%)	1.4	9.0	14.2	6.1
2009년도	4월 재학생수	562	305	276	1,143
	중도탈락생 수	5	26	25	56
	중도탈락률(%)	0.9	8.5	9.1	4.9
2010년도	4월 재학생수	773	297	347	1,417
	중도탈락생 수	19	13	35	67
	중도탈락률(%)	2.5	4.4	10.1	4.7

(교육과학기술부, 2011)

※ 중도탈락률=(연도별 중도탈락자 총수/연도별 재학생 총수) x 100

그러나 <표 4>와 같이 학교 교육 중 중도탈락율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끊은 중도탈락 사유로는 첫째가 가정사정(23.9%)이었으며 이민 등 출국(17.9%), 기초학력부족과 고연령으로 인한 학교부적응(11.9%)이 많이 끊혔다. 이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생활적응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적 측면의 지원이나 적응을 돕는 상담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5. 최근 4년간 중도탈락 사유별 현황(2011년 4월)

	2007학년도 (07.3~08.2)	2008학년도 (08.3~09.2)	2009학년도 (10.3~11.2)	2010학년도 (10.3~11.2)	2010학년도 비율
학교부적응 (기초학력부족, 고연령 등)	21	20	24	8	11.9%
장기결석 등				9	13.4%
가정사정 (경제사정, 가정환경 등)	10	9	9	16	23.9%
진로변경 (검정고시, 대안학교 등)	14	14	6	6	9.0%
건강	3	2	3	6	9.0%
취업				1	1.5%
이민 등 출국	-	-	-	12	17.9%
행방불명	-	-	-	4	6.0%
기타	26	14	14	1	1.5%
미가입				4	6.0%
계	74	59	42	67	100%

(교육과학기술부, 2011)

2) 학교 밖 북한이탈 청소년 유형현황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중도탈락하거나 학교 밖에 존재하는 상황은 다양한 사유를 들어 설명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무지개 청소년센터 세미나 자료집, 2011)

①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 한 경우

남한과 북한의 학령기 차이로 인해 자신의 나이에 비해 낮은 학교급에 진학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생활에 부적응하여 중도탈락 하기도 한다. 북한이라는 다른 체제에서 교육 받았다는 점과 남한의 학교 수업에 따라가기 위한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적응적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② 진로 등의 이유로 스스로 학교 밖을 선택한 경우

학교 밖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새롭게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학력 위주의

남한 사회의 단면을 파악함에 따라 공부가 아닌 다른 적성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학교 밖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선택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것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때때로 남한과 북한의 학령차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 밖을 선택하고 검정고시를 치루는 이들도 있다. 보통 10대 중후반에 남한에 입국하여 고등학교 저학년이나 중학교 과정부터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대학 진학을 꿈꾸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학교 밖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위기청소년 또는 사회부적응자로서 사회에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경제적인 이유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학교 진학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

학교 진학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학력 자원이 부족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며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학업을 시도하지 않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진로 설정 자체를 포기하려는 형태로 상태가 악화되기도 한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였으나 이후 진로 설정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낮은 학력으로 급여 높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간단한 기술을 배워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에 매진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은 악순환 됨으로써 학교 적용과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적응 또는 자포자기로 인해 학교 밖으로 밀려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사실혼이나 결혼을 통해 일찍이 가정을 꾸리는 경향을 보인다. 학력 자원이 부족해 경제적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이들은 더욱 심라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이들과 같은 학교 밖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해 단순한 복지 차원의 접근을 지양하고,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사회 속에서 구체화 시키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응적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동기의 과정, 그간에 겪은 경험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심리적 상태를 쉽게 일반화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이탈 청소년 다수가 보이는 공통된 일련의 심리 사회적 특성이 발견되어지고 있다. 지나친 일반화에 따른 오류는 경계해야 하지만 비교적 다수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성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북한이탈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① 불안

북한에서의 기근, 가족과의 죽음과 이별, 중국 체류기간과 북한이탈 입국과정 중 제 3국에서 북조선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끝없는 유랑, 은둔생활을 하게 된다. 거친 노동과 막일을 닦치는 대로 해가며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거나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는 생활을 한다. 다시 북송되지 않을까 라는 끝없는 불안과 극심한 공포 등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한 증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의 한 현상으로 적응교육기간 동안 교육 불참, 술 등 자극적인 물질복용, 남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 호소 등으로 표출되어 지고 있다(강성록, 2000; 홍순혜 외, 2003). 또한 낯선 남한 문화에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걱정에 의한 불안이다. 즉, 미지의 상황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성숙, 2003; 김진섭, 2004).

또한 권부균(2009)의 연구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은 탈북 과정에서 각각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남한 입국경로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심리적인 상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 불안, 그리고 반발 심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동시에 심리적 안정감과 성취감을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자신을 탐구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꿈을 꾸어야 그 시기에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살던 사회와 전혀 다른, 즉 이념과 철학과 사회구조와 사고체계가 전혀 다른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② 정체감의 혼란

성인에 비해 청소년들은 자아정체감의 형성이라는 발달단계상의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적 동일성과 연속성이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손상되면서 역할혼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태어나 자란 익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며 북한을 떠나 제 3국을 거쳐 남한사회에 편입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대부분이 극도의 불안감을 경험하며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심리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김형태, 2004).

또한 정체성이 자신과 외적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어 진다고 하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언어, 공간을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자기 동일성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 인간의 정체성은 시간과 공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공간은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빈번하게 변하는 공간과 그 공간마다의 차이가 너무 커서 아이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을 때 나는 도대체 어디서 사는 존재인가에 혼동을 느끼게 된다. 공간에 대한 이해는 일정한 삶을 살면서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공간 이동은 청소년에게 자기 동일성을 획득하는데 유약한 기반이 되어지고 있다(전우택, 1999). 따라서 탈북과정과 남한에서의 적응과정에서 느끼는 정체감의 혼란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에 다른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지고 있다(최명선·최태산·강지희, 2006).

③ 죄책감과 공포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항상 붙잡혀서 북쪽으로 송환되는 거에 대해서 극단적인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 이는 송환된 후의 자기 자신의 운명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에 대한 염려 때문이기도 한다. 이러한 공포심은 극단적인 죄책감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위험한 고비를 넘겨서 일단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게 되면 곧 심한 죄책감과 수치심까지 느끼는 경우가 많다. 북한에 남기고 온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은 자신의 행동이 비겁한 배반이라는 생각을 오래도록 지우지 못하고 돈을 벌어서 다시 북한으로 가서 잘 살고자 하여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언제 불법입국자로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탈북자들 모두가 일상적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공포심은 이들의 삶을 극도로 위축시켜서 인권유린을 당하여도 이에 대해 무기력한 존재로 만든다. 북한이탈 여자청소년들은 강제결혼, 인신매매, 성폭력 등의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항상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감을 가지게 된다(최명선·최태산·강지희, 2006).

④ 외상 후 스트레스(PTSD)

북한에서의 겪었던 삶과 제 3국에서의 겪었던 생활을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위협에 노출되어져 충격을 가지게 되며, 이들은 불안이나 공격성, 과거에 힘든 경험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위험성이 크고,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에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것으

로 보여진다(전우택, 2005).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PTSD 현상으로 적응교육 불참, 술 등 자극적인 물질 요구, 복에 남아 있는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표출되어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최명선·최태산강지희, 2006).

⑤ 열등감

열등의식에서는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차별감 또는 괴리감과 일상생활에서 체험하게 되는 지적 열등감 등이 있다(이기영, 1999).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사회일원으로 인정 해주기를 바라지만 선입견으로 인해 차별 당하게 되며 이로 인해 열등의식을 지니게 된다. 또한 의사소통의 차이, 문화의 이, 과도한 외래어 사용을 인한 어려움과 다른 사회구조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지적 열등감을 갖게 된다. 이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게 된다. 중국이나 제 3국, 하나원에 있을 때는 자신감이 넘치게 되지만 거주지로 이동하면서 초기 1-2주 이후부터 자신감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 나가게는 된다. 그 이후 남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생활하면서 부터는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이해부족, 학습공백과 학력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 등으로 열등감을 갖게 되는 등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다(이선윤, 2005).

2)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 특성

① 또래 관계에 대한 어려움

북한에서는 대인관계에서는 자기를 드러내는 개방성이 매우 낮고 인간관계형성이 매우 선별적(이기영, 2002)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형성의 어려움은 불안이나 위축과 같은 심리적응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 겪은 기근으로 인한 성장발육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남한 또래관계와의 차이 속에서 위축감, 스트레스 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래관계에서 생겨나게 된 소외감, 외로움, 정체성에 대한 혼란 등의 여러 가지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 적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전우택, 2000). 신체적 왜소함으로부터 오는 위축감과 열등감, 정서적 불안정, 외로움, 열등의식과 자기비하 등이 심리정서적 측면에서의 부적응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이기영, 2001).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남한의 말에서 느끼는 언어차이와 남북한의 상이한 용어,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은어 등으로 인해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길은배·문성호, 2003). 이와 같은 언어차이로 인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의 말을

남한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면서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남한 아이들과의 놀이문화의 차이에서도 이질감을 느끼면서 위축되어지고 소외감을 느끼면서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하지 못해 중도포기나, 대안학교, 검정고시 학원으로 발길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숨기면서 생기게 된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청소년기는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또래관계는 자아정체성 형성에 필수적인데, 탈북한 이후 체포의 공포로 자신의 존재를 숨겨왔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이후 체포의 공포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숨겨왔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에 정착한 이후에도 자신의 출신을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의 존재를 감춤으로써 자아정체성 형성 및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향규, 2006).

② 감정 표현에 대한 어려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감정 경험과 감정적 표현의 일반적 특성으로 지적되는 것이 감정의 에너지가 풍부하며 극적이고 고저가 심하다는 것이다. 정감이 넘치다가도 직설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여 당황스럽게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는 탈북과 이주의 과정에서 오는 심리적 긴장 속에서 감정혼란을 경험하게 되는데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이주의 어려움이 더하여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불안정성으로 인해 심리적 긴장이 더욱 크게 작용하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다른 요소로는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에서 대인관계를 저해하는 감정의 표현, 감정경험의 폭과 정도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공격성은 경험을 통해 겪었던 폭력적인 상황으로부터의 학습된 결과, 이는 좌절이 많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기도 한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정향진, 2005; 최성숙, 2003).

③ 가족의 해체와 부모역할의 부재

북한이탈 청소년이 혼자 오게 된 경우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며 애정결핍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며, 반대로 자신을 찾지 않는 부모에 대한 배신, 미움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사회부적응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보호와 관심의 부재로 사회에 방치되어 사회일탈 행동에 쉽게 가담하게 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최성숙, 2003).

가족의 해체에 따른 한 부모 가정, 부모의 재혼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방임과 유기를 경험하게 된다. 북한에서의 가정생활 축소로 인하여 아동을 탁아소에 맡기에 됴으므로 아동과 부모와의 애착관계형성이 결여되어 있고,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을 학습할 기회가 부족했고, 적절한 양육모델도 부재하게 되었다. 타국생활로 인한 낮은 모성애로 인하여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김진설, 2004 ; 엄경남, 2001). 이는 불안정한 상태로 오랫동안 떠돌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와 적절한 상호작용을 경험하지 못하여 남한생활에서도 자녀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기존의 가지고 있던 양육방식은 새로운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갈등을 증폭시킨다. 이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혼란과 갈등을 야기 시키기도 한다(최명선·최태산·강지희, 2006).

따라서 북한이탈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은 적응속도에 있어 차이가 커지게 되면서 부모와 자녀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서로 다른 이중요구를 받게 되면서 정체성 확립시기에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되면서 개인화 문제로 연결되어지게 된다(전우택, 2000).

2.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

가.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양한 측면에서의 적응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지만, 북한 이탈자의 적응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남과 북의 상이하게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응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들의 적응 과정을 문화적응 차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란 한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혹은 습관의 총체로서, 각각의 문화에는 고유의 규범과 그에 따른 적절한 행동유형을 지니고 있다(Hendricks & Hendricks, 1979). 이런 이유로 본인이 나고 자란 나라를 떠나 타국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이전과는 다른 문화적 배경 적응해야하는데 이러한 적응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Taylor & Lambert, 1996; 원영희, 2005). 이에, 본 장에서는 새로운 문화에 속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적응의 문제를 비롯하여, 남한생활 적응에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개관해 보고자 한다.

1) 개인적 측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신체적 특성, 종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① 연령

일반적으로 적응은 연령이 낮을수록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개인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소래(1997)는 국내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0세를 기준으로 낮은 연령대가 높은 연령대에 비해 더 낮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서구사회로 이주한 사람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새로운 문화에 쉽게 적응한다는 연구결과(예: Meredith, Wenger, Liu & Harada, 2000)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연구에서는 서구의 연구결과와 반드시 일치되는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즉, 연령과 적응 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없거나(금명자·김동민·권해수·이소영·이희우, 2003; 박윤숙, 2006), 오히려 낮은 연령이 사회적응상의 어려움을 더 많이 보인 경우(김형태, 2004; 선한승, 1995; 전우택, 1997)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전우택(1997)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첫째, 언어적 이질감이 적은 남한으로 이주함으로써 언어습득이 빠른 어린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고 둘째, 적응상의 어려움을 다루는 전략은 연령이 높을수록 다양하기(Berry, 1987)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전우택·유시은·조영아·엄진섭·서승원·홍창형(2005)은 연령이 적응 영역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남한사회 이해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와 경제 및 주거 불만족에 있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그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② 성별

성별과 관련하여 서구사회에 정착한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예; Gibson, 1997)나 북한이탈주민대상(예: 김형태, 2004; 윤여상, 2001; 정진경, 2002)의 연구들 중 상당수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적응과정상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전우택 등(2005)은 남한사회 적응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보이나 3년 이후에는 정신신체 건강만족도를 제외하고 남녀간의 차이는 없다고 보고하였다. 금명자 등(2003)의 연구에서도 역시 성별에 따른 문화적응 정체감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박윤숙(2006)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적응수준이 높다는 일반적인 연구결과는 여자 청소년들이 적응의 어려움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난 오류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남자의 경우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일탈행동으로 부적응 상태를 표출하는데 비해, 여자의 경우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우울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③ 신체적 특성 및 건강상태

신체적 특성 및 건강상태 역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이다. 신체상에 대한 선행연구들(예: 박경애, 2002; Marlene&Kelly, 2004)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열등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포래에 비해 작은 키와 덩치로 인해 위축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창호, 2001; 이기영, 2002). 체격의 왜소함은 여자보다는 남자들에게 더욱 민감한 요인(이춘재·오가실·정옥분, 1991)이므로, 신체적 왜소함은 남자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성인 북한이탈주민 14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소래, 1997)에서는 건강이 양호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종교

종교의 영향은 연구에 따라 다소 상반된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일련의 연구들(예: 길은배·문성호, 2003; 전우택, 1997)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에 있어서 종교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길은배·문성호(2003)는 종교 그 자체보다는 종교단체의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최승주·전우택·정우진(2005)은 종교성향 및 활동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우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더 나아가 김영수(2003)는 종교를 남한사회 적응의 저해요인으로 보았다. 남한사회 정착초기에는 종교단체의 도움으로 인해 종교로 인한 북한이탈 주민들간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면 종교적인 갈등과 동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종교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에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사회적 측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미치는 사회적 측면으로는 가족, 친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① 가족

일반적으로 가족은 한 개인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그 영향은 더욱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에도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실제로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남한친구가 많고, 수업시간의 집중도도 높으며, 남한사회 지식을 더 즐겁게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순혜·정익중·박윤숙·원미순, 2003). 또한 부모의 영향이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탈북 과정에서 부모와 이별하거나 사별하는 경우가 있으며, 고향인 북한에 남겨 두고 오는 경우도 있다. 이는 그들에게 심리적, 정신적으로 큰 공백을 가져다 준다. 설사 부모와 함께 온 가족이 탈북에 성공하여 정착하는 새터민 가정들이라 하더라도 변화에 적응이 상대적으로 빠른 청소년 자녀들과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장년층인 부모들 사이에는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남한에 거주하는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소래, 1997).

반면에 또 다른 연구들(김형태, 2004; 장창호, 2001)은 남한 사회 적응과정에서 겪는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과 불화는 북한이탈 청소년들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겪게 하기도 한다며 가족이 적응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형태(2004)연구에서도 대체로 북한이탈 청소년의 부적응과 관련된 요인으로 남한 친구와의 관계가 부정적이고 가족 또는 가족이외의 지지자가 없는 경우, 심리부적응이 더 크거나 심리부적응 유형의 주요 요인으로 가족이 있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부적응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하였다. 이것은 가족체계내의 기능상태가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이탈 주민의 부모-자녀간 갈등은 경제적, 문화적 적응어려움을 부모자녀가 함께 겪으면서 또 부모-자녀 간 적응 속도에 따른 차이가 갈등으로 연결되어질 가능성이 크다(최대현 외, 2007).

② 친구관계

청소년기에 있어서 또래는 서로에게 사회적 지지원으로서의 역할, 정보제공자, 역할모델, 강화자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제이

다.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북한이탈 후 가정을 제외한 집단에서 소속감을 느끼기가 어려우며, 그에 따른 소속감의 결여는 소외감으로 연결되어 심리적 부적응을 낳을 수 있다(장창호, 2001). 이러한 소외감은 같은 또래의 북한출신 친구들이나 남한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어울림으로써 극복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남한또래와의 관계는 심리 및 사회적응에 중요한 변인이다(김미숙, 2004; 김형태, 2004). 그러나 정착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늦은 진학으로 인한 동급생들과의 나이차이, 그들에 대한 남한 청소년들의 편견,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문화차이 등을 이유(박선경, 1998; 이기영, 2002; 장창호, 2001)로 남한의 또래와 친구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일부의 경우에는 심각한 수준의 부적응에 이르기도 하는데, 특히 무연고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한범·이우영·이금순·전효관, 2003; 길은배·문성호, 2003).

3) 교육적 측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측면으로는 남한입국 후 거치게 되는 하나원 및 하나들학교에서의 교육과 거주지정착 후 다니는 학교교육 등을 들 수 있다.

① 하나원 및 하나들학교에서의 교육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이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어있는 하나원과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하나들학교의 영향을 그 안에서 경험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인 적응과정에서 있어서 하나원을 조기 퇴소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간의 큰 차이점은 보이지 않았으나 하나원의 시설, 교육기간, 학습내용, 강사, 인적 자원과 대상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과정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창호, 2001). 한편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하나원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하지만 그 교육내용이 실제 남한사회 적응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길은배·문성호, 2003).

② 거주지 정착 후의 학교 교육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정규학교의 생활을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남한거주 기간이 6개월~2년 6개월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은 100%가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반면, 청소년들은 부적응으로 인하여 정교학교 재학율이 38%에 불과하였다(정진경 외, 2005). 또한 정규학교에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학교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으며(김미숙,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정규학교 교육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소래, 1997).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정규학교생활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시간적 측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적 측면에서는 탈북시기 및 제 3국에서의 거주기간, 그리고 남한 거주기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① 탈북 시기 및 제 3국에서의 거주 기간

선행연구들은 제 3국에서의 경험 역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절제한 생활과 절도, 범죄행위의 경험, 중국 공안(경찰)에 발각되거나 인신매매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언어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과 같은 제 3국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은 청소년들의 정신적 피해를 가져오며, 이후 남한 생활 적응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기도 한다(윤인진, 2000; 장창호, 2001).

② 남한 거주기간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회에서의 적응은 적응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예: Koser, 1997). 북한이탈주민들 역시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이장호, 1996; 전우택, 1997). 선행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남한정착 후 두 번째 해를 위기기간으로 보며 정착 후 4~5년이 지나야 비로소 적응단계에 이른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 청소년들 역시 남한생활초기에는 정보부족 및 제한된 인간관계, 문화나 언어적 차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을 사귀거나 특정 집단에 강하게 소속됨으로써 부적응을 극복하기도 한다(장창호, 2001). 그러나 친구관계나 학업 등에서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정착초기의 불안이 후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장창호, 2001)은 단순히 거주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적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5) 사회적 자본 측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에 미치는 기술적 측면으로는 의사소통 및 북한 사투리 사용 등의 언어문제와 남한 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의 습득정도 등이 있다.

① 의사소통 능력

북한이탈주민들은 사용하는 단어에 있어서 남북한 간의 차이, 북한 사투리 및 억양의 이해, 외래어나 한자에 대한 지식부족 등으로 남한에서의 언어사용 및 이해에 있어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길은배·문성호, 2003; 김형태, 2004; 박선경, 1998; 장창호, 2001).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남한 사람들의 의사소통 기회 및 빈도가 줄어들어 북한이탈주민들, 특히 청소년들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며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언어상의 문제로 인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의 대상의 되기도 하고(박선경, 1998; 장창호, 2001),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한받기도 하며(길은배·문성호, 2003) 학습에 대한 어려움이 더욱 커지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숙, 2004; 박선경, 1998).

② 정보 활용 능력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부족이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들이 진학 및 진로 선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정보의 부족 및 부정확성에 기인한다(길은배·문성호, 2003; 이기영, 2002). 또한 길은배·문성호(2003)은 무연고 청소년들이 정착 초기에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음을 보고하며 이들의 경제적 적응정도는 남한 사회 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많은 양의 올바른 정보를 확보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일탈행위를 적게 하며(박윤숙, 2006) 문화 적응 스트레스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소래, 1997).

6) 탈북과정에서 겪는 외상의 문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탈북과정상의 문제는 탈북과정에서 겪는 외상경험의 정도를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들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 내에서 뿐 아니라 탈북과정이나 제 3국에서의 체류기간동안 많은 외상적 사건들을 경험하였

으며 이러한 경험은 이후 그들의 정신건강에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보고해왔다(강성록, 2000; 김윤영, 2002; 윤인진, 2000; 이기영, 2002; 장창호, 2001; 전우택, 2000; 조한범 외, 2003).

예를 들어, 북한이탈 청소년 7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금명자·권해수·이자영·이희우, 2004)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9%가 북한에서나 탈북과정에서 외상을 경험하였으며, 그 정도가 심각할수록 불안, 우울 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향규(2007)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고립된 생활 경험 때문에 자아통제력이 아직 덜 발달하여 그동안 겪은 고통스런 경험과 상처가 거짓말, 폭력 등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여 교사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고, 그 일에 대해 물어보면 전혀 모르는 일처럼 시치미를 떼거나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탈출과정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들, 굶주림과 가족해체, 고향에 남은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감당하기에는 엄청난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 충격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함께 공격적인 폭력성을 유발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북한생활 및 탈북과정에서 심각한 외상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험은 PTSD의 발병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언급된 변인들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들로서 선행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것들이다.

나.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생활 적응에 있어서의 어려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원활한 남한생활 적응을 위해 적절한 개입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겪는 적응에의 어려움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북한이탈 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박선경, 1998; 이기영, 성향숙, 2001; 이기영, 2002; 서장혁, 2003; 이금순 외, 2003; 한만길, 1999).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생활 적응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들은 몇 가지로 유목화 될 수 있다.

1)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북한이탈 청소년이 남한 생활에 적응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교우관계를 맺을 때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그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놀림 받거나 따돌림 받는 것이다(이기영, 2002). 현 학교

현장에서는 탈북 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숨기고자 할 때에는 교사가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이란 사실을 당당히 밝히고도 그 사실이 교우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나 있지만, 대체로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과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부정적 낙인으로 작용해 또래 또는 급우와의 관계형성과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한 남북의 학령기 차이와 학업부진으로 인해 자신보다 어린 남한의 청소년들과 같은 반 친구가 되는 상황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급우들의 학업수준에도 미달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비하하게 됨으로써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심리적 어려움도 동시에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기영, 2002). 8명의 북한이탈 청소년을 인터뷰한 박선경(1998)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 청소년은 남한 친구를 사귀려는 노력은 보이나 매우 소극적인 편이었고, 교우관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으며 남한 청소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반면에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남한 청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의 갈등과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다(이기영, 2002). 다만, 남한 가정에서 발생할 법한 부모-자녀 사이의 갈등이 북한이탈주민 가정에서는 더욱 증폭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북한 체제에 보다 익숙한 부모 세대와 남한에서 정체성 갈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 세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학업문제

다음으로 북한이탈 청소년은 남한생활에 적응하면서 학업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 교육개발원의 탈북학생 교육실태 설문조사(2009)에 따르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꼽은 가장 큰 고민거리는 첫 번째가 학교 공부(57%)였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우 부족한 학업능력 때문에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된다(한만길, 1999).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업부진은 단순히 학업 영역에서의 문제에 그치기보다는 심리적, 육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이기영, 2002). 남한과 북한의 교육과정 차이와 학령기 차이로 인해 북한이탈 청소년은 북한과 남한에서의 학업능력 차이를 경험하게 되고 이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3) 진로문제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이 남한 생활에 적응하면서 진로결정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탈북학생 교육실태 설문조사(2009)에 따르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가장 큰 고민거리로 학교 공부 다음으로 진로문제(16.7%)를 꼽았다. 학업부진과 더불어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바로 진로 설정의 무계획성과 이에 대한 혼란감이다(이기영, 2002). 이들은 대학의 특례입학전형 등의 제도로 인해 남한의 학생들에 비해 대학 입시에 대한 큰 스트레스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대학 교육을 따라가고 졸업하여 직업을 얻는 비율은 매우 낮다. 진로에 대한 불안과 어려움은 학년이 올라가고, 학교급이 전환될수록 더욱 심각해진다. 막연하게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 고소득 직업을 갖거나 사업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한 단계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는 이들은 드물다. 학력 위주의 사회인 남한에서 어느 정도의 수학능력이 있어야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도 부족할 뿐더러 때때로 정부나 민간단체들 역시 적절한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많다(이기영, 2002).

4) 심리적 문제

마지막으로 북한이탈 청소년은 남한 생활에 적응하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으로 우선 북한 체제 아래에서의 삶 자체나 북한이탈시 느낀 불안과 두려움에서 발생하는 피해의식을 꼽을 수 있다. 30명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한 전익수(2001)에 따르면 북한이탈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와 유사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엄경남(2001)은 북한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피해의식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유발된 폭력성, 비도덕성 등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서 발견된다고 보고했다. 이와 더불어 남한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심리정서적 어려움들도 적지 않다. 특히 남한에서의 학업부진이나 진로 미설정에서 파생되는 심리적 문제가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어렵게 한다. 엄경남(2001)에 따르면 일반적인 남한 학생과 비교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업수준은 적게는 2~3년, 많게는 5~6년 정도까지 차이가 나서 이는 단순히 진학에의 어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학교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고 한다.

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대인관계 특성과 적응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대부분 북한이탈 청소년이 남한 생활에 적응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대인관계 문제를 들고 있다. 특히 남한또래와의 관계는 심리 및 사회적응에 중요한 변수이며(김미숙, 2004; 김형태, 2004; 이기영, 2002; 이현심·박주현, 최덕경, 2011), 학교적응(이수연, 2008)의 보호요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하면 남한사회 적응과 대인관계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 북한이탈 청소년의 대인관계 특성은 어떠한가, 대인관계 문제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북한이탈 청소년 대인관계 특성

대인관계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오랜 탈북과정 주변사람을 믿지 못하는 타인에 대한 경계심과 폐쇄성(이수연, 2008),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대인관계 태도(박선경, 1998)와 같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개인내적 특성으로 보기도 한다. 특히 이수연(2008)에 의하면 제3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어진 경우, 신체적으로 나이 어린 남한 청소년들과 학년편성이 되어 학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래문화와의 갈등 발생 소지가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남한사회의 편견(길은배·문성호, 2003; 이기영, 2002; 이수연, 2008), 남한 청소년 문화(이혜경, 2003)와 같은 개인외적 요인이 북한이탈 청소년의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이혜경(2003)의 연구를 보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쉽게 정을 주지 않아 진정한 친구가 되기 힘든 남한친구' 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렇듯 북한이탈 청소년의 대인관계 취약성의 원인은 개인내적 특성 및 이주로 인한 사회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 특히 사회적 편견이나 남한청소년 문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을 경우 더욱 더 대인관계의 문제가 부각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2) 북한이탈 청소년 대인관계 문제와 적응

또래와의 대인관계는 청소년기 정체성 발달의 주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괴롭힘과 왕따(박선경, 1998; 이기영, 2002), 주변화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어려움을 가져온다(이수연, 2008). 이러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일까?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교우관계나 교사의 무관심과 이해부족으로 심리적 상처를 경험하게 될 경우 학교 부적응(이기영, 2002; 이수연, 2008; 이해경, 2003), 심리적 부적응(이기영, 2002; 장창호, 2001), 남한문화 정체성에 대한 수용성 부족(김형태, 2010), 대인관계로 문제가 심리적 부적응으로 악화되었을 경우의 비행행동(조한범·이우영·이금순·전효관, 2003; 길은배·문성호, 2003)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탈 청소년의 대인관계 문제와 적응과의 관련된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편견 및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문화차이 → 남북의 학령기 차이와 학업부진 → 대인관계 악화 → 자기비하 및 소외감 → 심리적 부적응 → 학교적응의 어려움 및 사회 부적응의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체제

가. 북한이탈 청소년의 정착지원 체계

1)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체계의 흐름도

북한이탈 청소년이 탈북 후 입국 시까지의 과정과 지역사회 정착이후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크게 남한입국 후 초기 사회적응 기관인 하나원에서의 교육, 의료, 상담, 기타 행정지원 담당자와 하나원 수수료 거주지 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정착도우미,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가 있다. 이들의 지원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2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지정된 거주지 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편입과 지역사회복지관,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각종 사후지원을, 노동부의 협조 하에 전국 55개로 고용안정센터에 지정된 취업보호담당자는 직업훈련 신청 면담 및 접수,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진출 시 외부의 신변 위해 요소 제거 및 방지를 위하여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된 신변보호담당관은 이들의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정착도우미는 가족 및 친구, 이웃으로서의 역할, 문제해결 상담 및 자원연결, 취업 및 경제적 적응의 안내를 담당하고 있다. 그 밖에 종교 및 사회복지기관, 전문 상담기관에서의 조력자들은 삶의 영적

인 부분에 대한 종교적 지원 및 생활상담,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의 학습 및 진로지도, 심리검사 및 개인상담, 사회적응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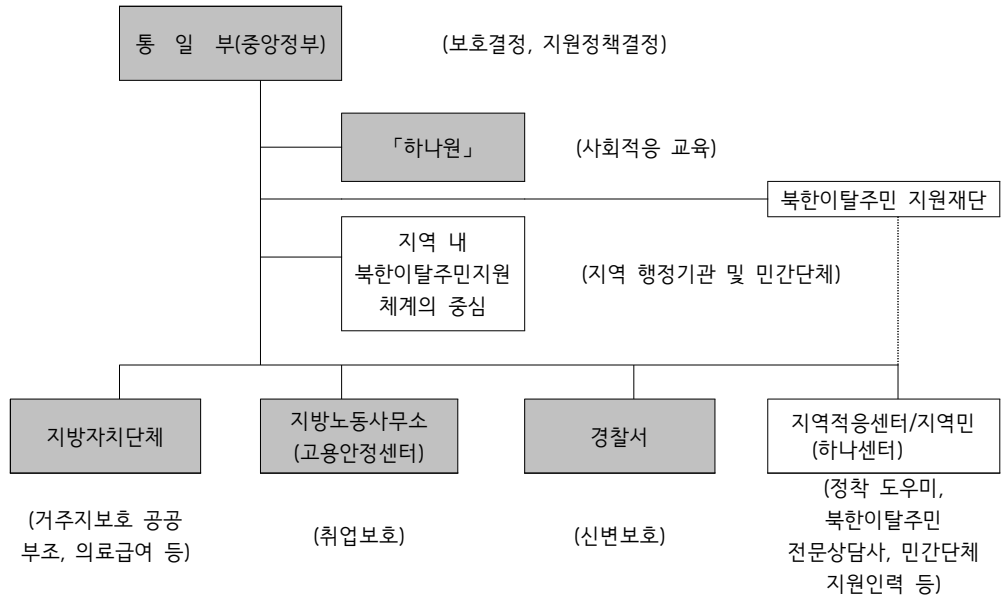


그림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정착 지원체계

김은경(2008)에서 인용하여 수정보완

현재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을 이해하고 돕기 위한 전문교육으로는 청소년관련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07.12월부터 여성가족부 산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구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실시하는 「새터민·다문화전문가 양성교육」이 있다. 또한 통일부 산하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제도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상담, 의료, 교육, 복지, 취업지원 등 전문적인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2010년 3월 2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근거하여 시작된 제도이다.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는 2009년 하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5회에 걸쳐 현재까지 105명이 선발되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내 종합상담실에 4명, 24시간 콜센터에 7명, 취업상담실에 2명 등 총 13명이 근무하며, 전국 하나센터에 44명, 민간기관 및 상담센터에 50명이 배치되어 있다. 전문상담사 중 상담 전공, 관련 자격 보유자 및 상담경력자로 구성된 14명의 수퍼바이저가 지역별로 4~8명의 전문상담사를 지원하고 관리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2011년 12월 현재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3,100명에 달하는데, 입국 한 지 1년 미만의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센터에 배치된 전문상담사 북한이탈주민 민간기관 및 상담센터에 배치된 상담사에 의해 상담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그 외 긴급 상황, 각종 민원, 취업 등의 호소상담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종합상담센터, 24시간콜센터, 취업상담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정부 및 민간단체의 지원체계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통일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의 정부부처가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① 통일부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초기 적응과정 및 안정적인 거주지 정착에 걸쳐 전 지원과정을 담당하는 부처로, 통일부 내의 정착지원과에서 수행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과정 전반이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에도 해당된다. 그중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는 교육 및 진로 선택, 취학 및 취업관련 지원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입국 직후 보호결정이 확정된 북한이탈 청소년은 하나원 입소와 동시에 하나원 내 예비학교인 하나돌학교에서 일반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나돌 학교는 2010년 개정된 「정착지원법」(2010.9.27시행) 제24조의 2에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면서 법적 성격을 띤 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북한이탈 청소년이 하나돌예비학교에서 일반학교로 진학할 경우 예비학교 재학기간이 정식교육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¹⁾. 하나원 입소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하나돌 예비학교 외에 초등학생의 경우, 북한이탈 청소년 위탁교육기관인 삼죽초등학교, 중·고생의 경우 특성화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에서 일정기간 학업을 지속하며 정규학교 편입학을 준비하게 된다.

거주지 정착 후 거주지보호 정책 범주에 포함된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등을 통해 학업 및 진로선택, 취업 등과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전국 30개 지역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하나센터에서는 각 센터별로 시행하는 내용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1년간의 사후 지원 과정에서 북한이탈

1) 예비학교 교육과정은 3개월이지만 추후 교육과정을 1년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3개월의 교육과정이 끝난 후에도 북한이탈 청소년이 원하는 경우 최대 1년간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진학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센터(24시간 종합콜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취업, 학업, 심리 등 분야별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 지원재단에서는 현재 10개의 방과후 공부방 운영 및 영유아 보육지원을 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및 청소년의 취업 및 직업훈련을 위해 취업지원실을 설치·운영, 대학생 취업캠프,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청소년 진로캠프, 청소년취업지원 강화 등의 세부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경우에도 분야별 전문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교육영역의 협력단체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지역협의회에 참여하는 주체로는 초·중·고등학교 교사 또는 학교사회사업가 등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은 지역협의회를 통해 학교생활 안내 및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상담, 진학과 취업을 위한 지도, 학업 및 학교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된다²⁾.

②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교육지원 및 학력인정과 관련한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지역 단위의 시·도교육청, 북한이탈 청소년교육지원센터 3 주체가 지원체계 및 내용별로 역할을 나누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이 역할은 부처 내 교육복지국 교육복지과에서 담당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각 시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협의회를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각 교육청별로 멘토링 및 교과 보충, 진로·직업교육, 방과후 특별교실 운영, 전담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북한이탈 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지원의 종합적인 현장지원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교과부에서 기존의 한국교육개발원 내 통일교육연구실을 북한이탈 청소년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면서 2009년 8월에 신설되었다. 이후 북한이탈 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지원과 관련 세부계획 수립 지원, 시도교육청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업무 지원, 교원 대상 연수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재 개발 및 보급, 관계기관 연계협력 체제 구축,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포털 사이트(www.hub4u.or.kr) 운영 및 상담을 통한 정보제공까지 다양한 역할을 통해 북한

2) 각 지역협의회별로 협력단체 구성이 영역 및 내용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지원 내용은 이상에 기술된 내용과 다를 수 있다.

이탈 청소년의 교육기회보장 및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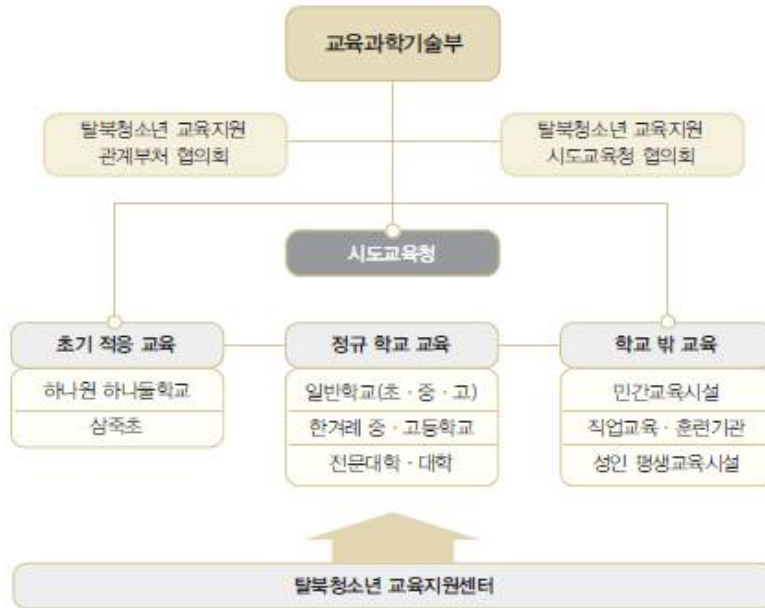


그림 2. 교육과학기술부의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추진체계

(교육과학기술부, 2011)

※ 관계부처협의회의에는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의 관련부처들이 참여함.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2010, 2011년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추진계획」을 토대로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정책영역은 1. 초기 적응교육지원, 2.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 3. 학교 밖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지원, 4. 종합지원 체계 구축 및 연계 강화라는 4대 정책영역을 유지하되, 각 세부과제는 과제 추진 현황에 따라 지원 영역이 확대, 강화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6. 교육과학기술부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지원계획의 주요 내용

영역	세부 과제
초기 적응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원 초기 적응교육 지원 • 한겨레 중·고등학교의 기능 재정립 및 교육여건 개선(2010년) • 한겨레 중·고등학교 기능 강화 및 운영 내실화 지원(2011년) • 북한이탈 청소년 학력인정 절차 개선 및 학생 교육정보 공유
학교교육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 청소년 밀집학교 및 밀집지역 지원 • 학생 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 • 교사 지도 역량 강화 • 전문 교육인력 발굴 및 역량강화 • 학부모 교육지원 역량 강화
학교밖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인정 대안학교 설립 지원 • 민간교육시설 교육역량 강화 • 학교 밖 사각지대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 복귀 지원 및 교육지원 • 공립 대안학교(시·도, 시·도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 설립 지원 • 북한이탈주민 평생교육 지원 강화
종합 지원체제 구축 및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 청소년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지원 협력체제 강화 • 북한이탈 청소년 인식개선 및 통일대비 교육역량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2011)

③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내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내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자립지원과이며, 특히 2006년 4월 설립한 무지개청소년센터를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지개청소년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 8월 재단법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사회 정착 지원 및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감수성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은 정착과정에 따라 입국초기 지원사업과 지역사회정착 지원사업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입국초기 지원사업

은 남한사회 정착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사회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둘학교 협력운영, 하나원 방문교육, 비교문화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지역사회정착 지원사업은 하나원 퇴소 이후 전국으로 분산 거주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체적인 지역정착사업으로는 지역정착프로그램, 온·오프라인 상담, 유관기관 연대사업, 무지개 콜, 등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밀착형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지역자원과의 연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사업 흐름을 2012년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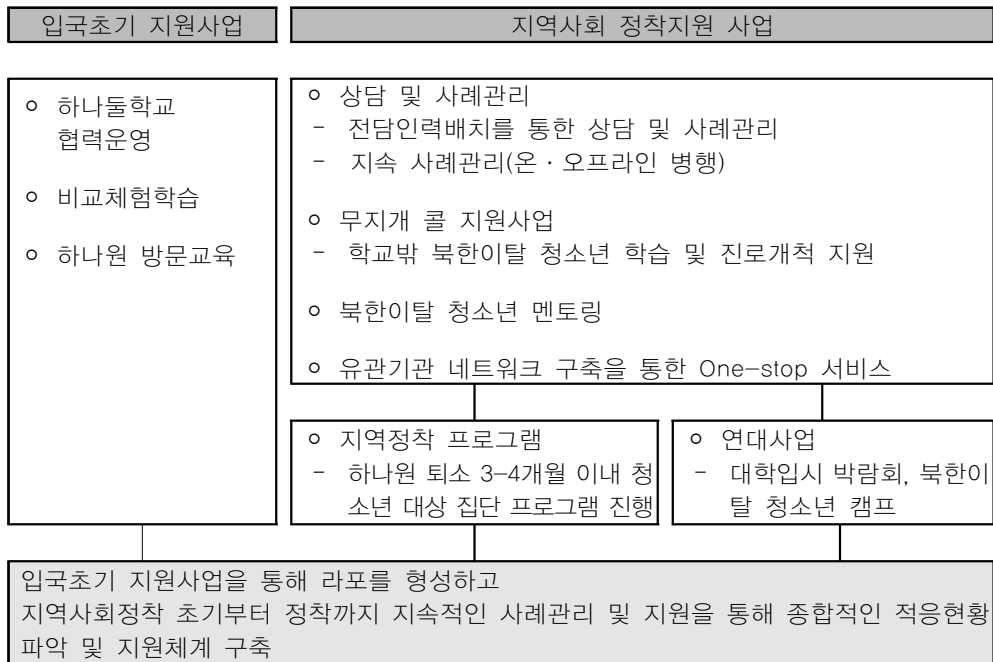


그림 3.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사업 흐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11)

④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북한이탈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 정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 정책을 펴고 있으며 또 고용노동부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중 일부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의 참여가 가능하다.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층 일부가 참여 가능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참여 대상자 연령이 만 18세~64세이기 때문에 북한이탈 청소년 중 취업훈련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2010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할 방침으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자비부담(20~40%)을 면제하고, 훈련비는 더 많이 지원(200만원→300만원)하는 등 우대하여 직업·훈련상담 → 직업훈련 → 집중 취업알선으로 직접 이어지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취약한 정착생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통일부, 2011). 그러나 고용노동부 자료 등에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후 취업이 된 북한이탈 청소년 현황이나 연령대별 취업지원 현황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아,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실제 얼마나 이런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아직까지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취약한 것이 상태로 보다 체계화되고, 현실적인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자립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내용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구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작성한 이주배경청소년 백서(무지개청소년센터, 이주배경청소년 백서 서울: 무지개청소년센터, 2011)의 내용을 참고하였음.

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제도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정착지원법」에 기반한 통일부 중심의 정착지원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지원의 경우 북한이탈 초·중·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 청소년포함)을 대상으로 한 학력 인정 확대 및 대학진학 희망자에 대한 특례입학 허용, 학비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예비학교 설립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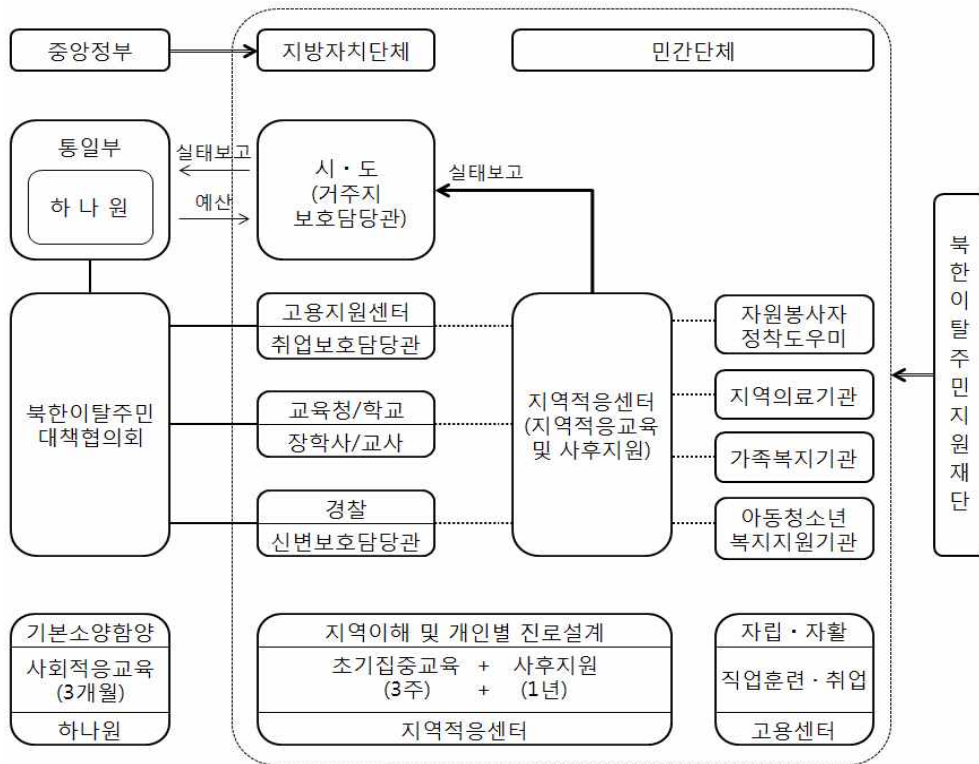


그림 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 체계도 (국회예산정책처, 2012)

표 7.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구분	항목	내용	근거규정
사회적응교육	하나원 입소 교육	12주, 420시간에 걸친 사회적응교육 및 추가 교육 (자율참여)	제10조, 제11조
정착금 지급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600만원 지급	제11조 2항, 제21조
	장려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 장려금 등 최대 2,240만원	
	가산금	노령,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장기치료 등 최대 1,540만원	
주거지원	주택알선	임대 아파트 알선	제20조, 시행령 제38조 1항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	

구분	항목	내용	근거규정
취업	취업훈련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월 30만원 지급(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희망자의 경우 연결	제16조, 시행령 제32조 1항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	급여의 50%(50~70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	제17조
	세제혜택 (채용기업)	북한이탈주민 채용 기업 재정지원 또는 세금감면	제17조의 4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55개 고용지원센터에 지정, 취업상담·알선	
	공공기관평가 반영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음	제18조의 2
	기타	취업보호(우선구매), 영농정착지원, 특별임용 등	제17조5항, 제17조의 3, 제18조
사회 복지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1인 세대 월 약 42만원)	제26조
	의료보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서 본인 부담 없이 의료 혜택	제25조
	연금특례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은 국민연금 가입 특례	제26조의 2
교육	특례 편·입학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제24조
	학비지원	중·고 및 국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예비학교 설립·운영	북한이탈 청소년의 일반학교 진학 지원	제24조의 2
기타 거주지 보호	정착도우미	1세대 당 1~2명의 정착도우미를 지정, 초기 정착지원(전국 2,000여명)	
	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담당관(200여명), 취업보호담당관(55명), 신변보호담당관(800여명)	
	지역적응센터	하나원 교육 수료 후 최초 거주지 편입 시 지역적 응교육 실시(3주 지역적응교육, 이후 1년 간 사후 지원)	제15조제2항, 시행령 제30조제3항, 제22조제2항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적응에 필요한 종합 정착지원 추진	제30조
	전문상담사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 제공(2011년 1월 기준 96명 활동)	제22조의 2
	지역협의회	정부·민간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위한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통일부(2011) 내용 재조직

2)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근거법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정착지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추진된다. 「정착지원법」에 근거해 북한이탈 청소년은 정착, 주거, 교육지원, 취업보호, 정착금 또는 정착금품, 의료보호, 생활보호, 국민연금 특례 및 기타 다양한 거주지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맞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교육감이 인정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출신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96조제1항제2호).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전문대학 졸업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맞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대학 졸업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포함. 대학원대학 제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 및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33조). 끝으로 2008년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를 통해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받아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진학 및 사회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시행령 제96조, 제98조, 제 98조의 2, 제98조의 3).

4.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고찰

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상담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통합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증가와 우리사회의 다문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상담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상담에 대한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상담에 대한 태도와 요구도(김성희·김현아, 2005; 조영아, 2009), 북한이탈주민 상담자 역할(김현아, 2007; 조영아·유시은, 2006), 북한이탈주민 상

담모형(김현아·정성란, 2008; 이장호, 2008), 북한이탈주민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미술 치료(김선현·송희정·최순주, 2009; 김정미, 2008; 이신숙, 2008; 최성숙, 2003)와 놀이치료(최명선·최태산·강지희, 2006), 대인 관계 증진 프로그램(강숙정, 2009; 한성열·이종한·금명자·채정민·이영희, 2007), 목회 상담(강경미, 2006; 유영권, 2005; 유혜란, 2004) 등이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사회의 북한이탈주민 상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폐쇄적인 북한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 상담의 실효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음을 말해준다.

전문적인 조력추구 행동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나(Joanne, 2007), 도움추구 행동은 문화적 태도에 따라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 준거의 틀에 맞게 지속적으로 수행 되어져야 한다(Baozhen, 2007). 김성희와 김현아(200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한생활 경험이 없는 하나원 내 북한이탈주민은 온정적이고 전문적이면서 북한이탈 자 상담경력이 많은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고 싶어 하였다. 또한 자기 해결적 성향과 접근성, 남한 상담자에 대한 괴리감으로 인해 도움요청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한의 전문적 상담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은 상호감시 비판의 북한문화, 북한이탈 상황, 제3국 체류기간의 차별대우, 지지체계의 미약, 은신생활에서 강화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 155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상담에 대한 요구도와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을 조사한 조영아(2009)의 연구결과를 보면, 정신건강 전문가를 한번 이상 만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전체의 28%에 불과하였고, 이중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35%에 그쳤다. 이는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 숫자에 비해 전문적인 상담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 특성에 맞는 다문화 상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상담 전문가와 북한이탈주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문가라는 2가지 역할에 있어서 전문적 자질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듯 북한이탈주민 상담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훈련 과정을 필요로 한다. 한편, 전국의 북한이탈주민 조력자 197명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북한이탈주민 대상에 대한 이해와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이해, 북한이탈주민과의 의사소통 해결, 북한이탈주민과의 대인관계 유지,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지체계 확보 등이었다(윤여상·김현아·한선영, 2008).

현재 2005년부터 시작된 지역사회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지원은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의 사회복지기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담전공자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김선화(2007)는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지원 사업의 어려움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지속상담의 어려움, 대상자 확보의 어려움, outreach 상담에 따른 심층 상담의 어려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문가 부족, 현실적인 차원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에 대한 상담경험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도 있다. 권수영과 최정현(2011)은 총 1,200명의 북한이탈주민 중 전문상담사와 상담경험이 있는 317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총점 3.85이었으며, 각 지표별로는 편익성 3.65, 전문성 3.70, 혁신성 3.64, 대응성 3.99, 공감성 4.09, 사회적 만족도 4.07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성별, 직업, 나이, 정착기간에 따른 만족도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던 반면, 상담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만족도는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프로그램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구체적으로 표 8에서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상별로는 아동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인데 대부분이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금명자·주영아·김상수·이태성·이자영, 2005; 박지영, 2001; 변미희·강기정, 2005; 한상훈, 2006; 허은영·강혜영, 2010) 대부분이 북한이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인관계(박지영, 2001), 통일 대비 및 문화적응(금명자 외, 2005; 정현정, 2009), 미술치료 프로그램(김정미, 2008; 변미희·강기정, 2005), 음악치료(정현정, 2009), 부모교육(강란혜, 2008; 최대현·이인수·김현아, 2007), 학습적응(한상훈, 2006), 진로지도(허은영·강혜영, 2010), 멘토링(전명희, 2011)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미술치료 이외에는 대부분 8회기 이하의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대인관계(박지영, 2001), 자아 존중감 및 자기 효능감(금명자 외, 2005; 김정미, 2008; 변미희·강기정, 2005), 학교생활적응(김정미, 2008; 한상훈, 2006), 문제행동(전명희, 2011), 진로성숙도 및 성취의지(허은영·강혜영, 2010), 부모교육(강란혜, 2008; 최대현·이인수·김현아, 2007)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고찰 결과, 북한이탈 아동 대상의 미술치료, 음악치료와 같은 매체치료가거나 멘토링이나 학습, 진로와 관련된 주제,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의 부모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북한이탈주민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상담프로그램의 선행연구

구성 연구자	프로그램명	대 상	기 간	프로그램 구성요소	효과성 평가
박지영 (2001)	대인관계 능력향상	북한이탈 청소년	8회기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 • 의사소통훈련 • 문제해결훈련 • 자기이해 및 자기개방훈련 • 역할극 • Hot Sheet 	• 대인관계
금명자, 주영아, 김상수, 이태성, 이자영 (2005)	통일대비 상담프로 그램	북한이탈 청소년 8명 (20-25세)	8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소개 및 자기소개 • 우리사회 가치 찾아보기 • 생활 속 가치탐색 및 갈등해결 • 인물 속 가치 적응하기 • 가치 목표 및 계획세우기 • 개인목표 가치 체험 • 목표수정 및 실천계획 세우기 • 다지과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효능감 • 참가소감 질적 평가
변미희, 강기정 (2005)	집단미술 치료프로 그램	대안학교 재학생 13명(7명, 실험, 6명비교 집단)	8회기 (1회당 1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 사전검사, 난화그리기 • 찰흙작업, 자화상그리기 • 9분할법-나와 관계있는 것 그리기, 신체분뜨기 • 콜라주-나의 과거, 현재, 미래 • 내가 사랑 하는 사람에게 편지쓰기, 집단공동화 • 물감불기-숨은 마음그리기 • 난화상호이야기, 10년 후 자신의 모습 그리기 • 수료파티, 사후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 존중감 • 회기별 관찰 및 기록에 대한 내용분석법

구성 연구자	프로 그램명	대 상	기 간	프로그램 구성요소	효과성 평가
한상훈 (2006)	집 단 체 학 습 적 응 프 로 그 램	북한 이탈 중학생 18명	8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 • 친해지기, 타인이해하기 • 공동체 의식 함양하기 • 의사소통하기 • 협동심 함양하기 • 신뢰감 형성하기 • 자신감 향상하기 • 문제 해결력함양하기 • 목표 의식함양하기 • 자긍심 함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 적응 (교유관계, 교사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실천, 학교생활인식, 진로인식, 자주적인 생활, 문제해결능력) • 프로그램 활동평가
최대현, 이인수, 김현아 (2007)	부 모 교 육 프 로 그 램	북한 이탈 아 동· 청 소 년 부 모 125명	6회기 (1회기 10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점검-양육태도에 대한 자기검토와 자녀에 대한 일반적 특성과 문화이해 • 정보제공-남한의 교육제도에 대한 이해, 학교와의 관계, 부적응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 체험교육-인간관계교육, 역할극을 활용한 갈등관리 대처방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만족도, 개방형 만족도 분석
강란혜 (2008)	북 한 이 탈 아 동 과 부 로 를 위 한 심 리 사 회 적 적 응 프 로 그 램	북한 이탈 아 동 7명 과 부 모 7명	주2회씩 총 3주 6회 (1회당 9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자녀 알기 • 남한사회의 자녀양육의 적응 • 부모자녀 마음열기(대화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자녀알기 (성교육법, 학습태도증진법, 자녀외모문제대처법) • 민주적양육행동 • 갈등해결을 위한 해결법
김정미 (2008)	아 동 중 심 미 술 치 료	북한 이탈 초 등 6년 여 학 생	17회기 (1회당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단계: 자아인식단계 5회(주제화(KSD), 주제화(KHTP), 자유화 2회, 주제화(난화게임)) • 자기발견 단계: 내적욕구단계 5회(주제화(동그라미중심가족화), 자유화, 주제화(스트레스 1), 주제화(스트레스 2), 자유화) • 변화단계: 자기수용 4회(자유화, 주제화(동그라미 중심 가족화), 주제화(KHTP), 지난그림보기) • 종결단계: 통합 및 조화(주제화(장점찾기), 자유화, 주제화(K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D (학교생활화) 투사검사 • 자아개념

구성 연구자	프로 그램명	대 상	기 간	프로그램 구성요소	효과성 평가
정현정 (2009)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를 위 한 음악심 리치료	9-13세 북한이탈 아동4명 (여3,남1)	14회기 (1회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 단계(1~4회기): 음악활동 소개와 선호노래 함께 부르기 • 전개 단계(5~12회기): 주제가 있는 즉흥연주 • 종결 단계(13~14회기): 소속감 확인 후 즉흥연주(표정 카드, 그림 그리기, 이야기 창작과 같은 비음악적 매체를 보조적 자료로 활용), 음악적 활동 내에서 성취감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응 스트레스 • 언어적, 음악적 내용분석
허은영, 강혜영 (2010)	진로지도 프로그램	17-23세 북한이탈 청소년 7 명(비교집 단 6명, 무 처치집단7 명)	6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직업세계 비교 및 직업의 의미 • 진로정보 탐색방법 및 미래직업세계안내 • 진로관련 개인특성 이해 •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및 목표의 실현가능성 평가 • 장애물 대처방법 및 장점 나누기 • 세부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성숙도 • 성취의지
전명희 (2011)	멘토링 프로그램	7명 북한 이탈 초 등 학생과 2명의 중 학생	9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회의 멘토 교육(기본교육,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 특성, 새터민 가족특성) • 매주 1회 2시간 1:1 멘토링 • 월 1회 멘토 간담회 • 총5회 집단프로그램(인간관계 활동, 여름방학 1박2일 갯벌체험, 가을소풍, 멘토 대학의 축제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행동 (K-CBCL) • 프로그램만족도 • 멘토링대상 FGI

III. 연구방법

1. 프로그램 개발 절차 모형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상담개입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김창대(2002)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모형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를 기획·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절차는 아래의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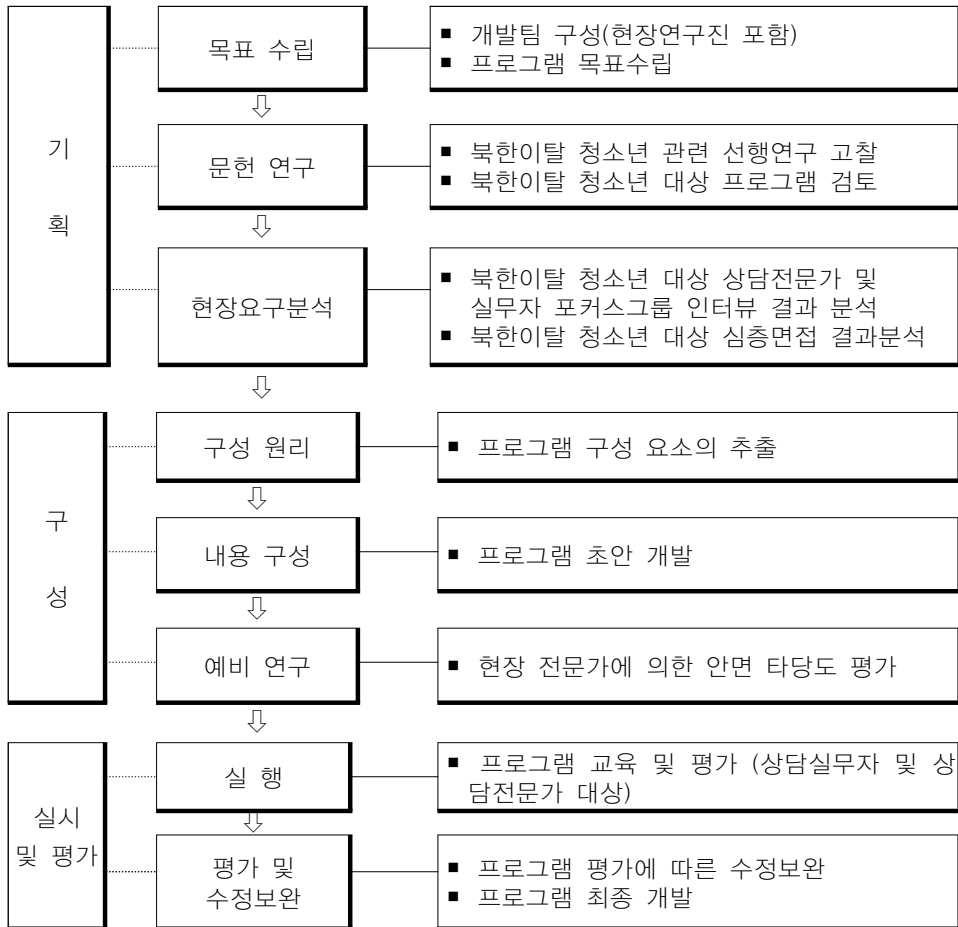


그림 5. 프로그램 개발 모형 (김창대, 2002)

2. 프로그램의 개발과정

가. 기획단계

본 연구는 북한을 이탈하여 현재 남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남한생활적응 증진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국내 상담심리학과 교수,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상담 및 연구 유경험자) 및 본원 연구진으로 개발팀이 구성되었다.

연구개발진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우선 국내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 및 프로그램을 고찰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였다.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거나,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함께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상담에 대한 태도 및 상담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북한이탈 청소년 및 상담자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면접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결과들을 분석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요소 및 상담 시 고려해야할 주요 내용들을 추출한 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전국 시군구 상담지원센터에서 근무 중인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교육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청소년상담 경험이 풍부한 상담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평가를 받은 후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였다.

1) 문헌연구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황 및 심리적 특성의 이해를 파악하고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주요 구성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에서 연구되어진 문헌 및 프로그램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실태 및 현황에 대한 기초 조사를 포함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심리 및 적응과 관련된 요인을 밝히고 있는 국내연구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입요소 및 원리 등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고찰을 기

반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방향을 탐색하였다.

2) 상담전문가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분석

① 조사대상 및 내용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전문가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대안학교나 북한이탈 청소년이 상담받는 상담기관들에 연락을 하여 지원자를 모집하였다. 대상자는 주로 북한이탈 청소년을 상담하거나 대안학교에서 근무하는 상담교사였다. 대상자는 대안학교 상담교사 3명,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사 및 실무자 4명, 상담기관 상담사 4명으로 총 11명의 상담사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대부분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경험이 있는 상담사이거나 대안학교나 상담기관에 근무하면서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응을 돕기 위해 지원을 해주는 실무자였다.

표 9.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심층면접에 사용된 질문내용

질문내용
1)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성
2)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의 특성
3)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주요 호소문제
4) 도움이 되었던 상담 방식은?
5)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적합한 상담 방식(개인상담 vs 집단상담)은?
6) 상담 진행의 어려움(8번 9번 11번)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
7) 상담 시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식
8)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사전 교육은?
9)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10)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상담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 사항은?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상담개입 프로그램의 방향을 찾기 위해 사전에 북한이탈 청소년 전문가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이탈 청소년 전문가 그룹(delphi) 인터뷰를 실시한 이유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상담개입 프로그램이라는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미래를 예측하기 위함이다. 또한 북

한이탈 청소년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통해 서로 생각에 대한 자극을 줄 수 있어 본인이 미처 생각해내지 못하는 내용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성과 상담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호소문제가 무엇인지, 상담의 특성이 어떠한 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때 북한이탈 청소년의 상담 진행시 어려움과 대처방안을 질문해봄으로써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프로그램에서의 효율적인 개입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 청소년 전문가들의 교육경험과 필요한 자질을 인터뷰함으로써 북한이탈 청소년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교육요소 및 인간적 자질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인터뷰에 앞서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개입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사전에 연구진회의를 통해 구성된 반구조화된 면접용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내용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성, 주요 호소문제, 상담 진행시 어려움에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왔는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자가 갖추어 할 자질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세한 질문 내용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면접 실시 전, 면접에 참여하는 실시자들은 사전 모임을 통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검토·숙지하였으며, 면접은 상담자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면접에 참여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인터뷰 내용에 대한 녹취 및 연구자료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인터뷰 내용 활용 시 개인적인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것을 고지하였다. 심층면접은 1인당 약 60분에서 90분 정도로 이루어졌다. 면접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 면접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구분	성별	나이	북한이탈 상담경력 (총 상담경력)	근무기관
1	남	40대	5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	여	30대	5년(7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3	여	40대	4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4	여	30대	3년	서울시청소년 상담지원센터
5	여	30대	3년	한누리학교
6	여	50대	2년(15년)	로템상담소
7	여	50대	1년(8년)	로템상담소
8	여	30대	1년(3년)	로템상담소
9	여	50대	1년(8년)	로템상담소
10	남	50대	20년	한겨레학교
11	남	30대	1년(8년)	한겨레학교

② 자료분석

Kruger(1998)는 포커스 그룹을 인터뷰한 자료는 4단계 과정을 거쳐 분석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Kruger(1998)의 포커스 그룹 4단계 과정을 준수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제1단계는 연구 시작 단계로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자가 모여 역할 분담을 한 후 주요 질문을 합의하여 확정짓도록 하였다. 제2단계는 포커스 그룹의 인터뷰 내용을 모두 녹음하고, 불충분한 대답들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을 통해 구체화하도록 하였다. 제3단계는 인터뷰 내용을 인터뷰 직후 정리하고, 그 중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단계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내용을 즉시 모두 전사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러한 4단계 과정을 거쳐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의 개방형 코딩을 적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개방형 코딩을 적용하여 중요한 주제와 관련된 개념을 명명한 후, 비슷한 내용의 개념들을 범주화하였다. 이를 위해 면접자들이 평정에 참여하였고, 면접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된 관점과 불일치를 막기 위해 처음 10분에 대해 각자 평정한 다음 합의하여 의견을 조정하였다. 이때 평정은 개방형 코딩의 개념과 범주의 수준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전체 축어록에 대한 평정이 끝난 다음에는 두 번째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평정을 실시한 면

접자들 사이에 일치한 내용으로 분석내용을 합의하였다. 모두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토론을 통해 다시 합의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③ 상담전문가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결과 (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참조)

㉠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성

포커스 그룹은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상담전문가 및 현장전문가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이 꼽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징으로는 남한사람과의 대인관계, 자기노출의 어려움, 심리 정서적 딜레마가 있었다. 그에 따른 자세한 하위 개념은 아래와 같다.

• 남한사람과의 대인관계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징 중 하나로 남한사람과의 대인관계를 꼽을 수 있는데 하위 개념으로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와 불신이 많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쉽게 상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고, 생존을 위해 거짓말에 익숙하다는 점이 있다.

• 자기노출의 어려움

북한이탈 청소년은 자기노출을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로는 신분노출에 대한 우려, 자기노출 경험 부재, 북한출신 정체성 드러내기의 어려움, 자기노출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심리 정서적 딜레마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성으로 또 다른 하나는 심리 정서적 딜레마로 외로움, 신체적 외소로 인한 열등감, 정서억압, 분노조절의 어려움, 정체성 정립의 필요성을 하위 개념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 북한이탈 청소년의 상담에 대한 태도

인터뷰에 참여한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상담전문가 및 현장전문가들은 북한이탈 청소년이 상담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상담이라는 무형의 도움을 낯설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하위 개념은 아래와 같다.

-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북한이탈 청소년은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사전정보 및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상담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상담의 유익성에 대한 의심과 더불어 일부 청소년들에게서는 남한에서의 부정적 상담경험으로 인해 상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상담이라는 무형의 도움이 낮설음

북한이탈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상담에 대한 태도의 하위 영역으로는 상담이라는 무형의 도움이 낮설다는 것이 있다. 북한문화에서는 상담 및 치료를 통해 정신적인 도움을 받는 일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되어 지는데, 이로 인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상담이란 현실적인 문제로 도움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청하기보다는 비자발적 상담신청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㉔ 주 호소문제

북한이탈 청소년이 상담전문가 및 현장전문가들에게 호소하는 주된 고민으로는 정신건강문제, 학력 부족으로 겪게 되는 학업의 어려움, 대인관계 문제, 진로문제, 가족문제, 환경적 문제가 있다고 진술했으며, 그 각각의 하위개념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꼽았다.

- 정신건강

북한이탈 청소년의 주 호소문제 중 첫 번째는 정신건강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실존적 불안, 신체화를 그 하위 개념으로 꼽을 수 있다.

- 학업의 어려움

북한이탈 청소년의 주 호소문제 중 두 번째는 학업의 어려움이다. 하위 개념으로는 기초학습 경험 부족, 남북한의 학업수준 차이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 학교적응의 어려움이 있다.

- 대인관계 문제

북한이탈 청소년의 세 번째 주 호소문제는 대인관계 문제로 남한 친구교제의 어려움, 이성교제 집착, 언어차이, 왕따를 하위 개념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

- 진로문제

북한이탈 청소년의 네 번째 주 호소문제는 진로문제로 현실적인 기대조정의 어려움과 직업결정 방식에 있어서의 남북한 차이, 그리고 진로 미결정이 그 하위 개념이다.

- 가족문제

북한이탈 청소년은 다섯 번째 주 호소문제로 가족문제를 꼽을 수 있는데 가정해체, 가정폭력, 재결합 가정의 문제, 부모의 북한식 양육태도를 구체적인 하위문제유형으로 나타냈다.

- 환경적 문제

경제적 어려움과 주변의 지지체계 부족을 환경적 문제로 범주화 되었다.

㉔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의 특성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상담전문가 및 현장전문가들은 북한이탈 청소년을 상담할 때 주된 특성으로 구조화된 상담진행이 어렵고, 북한이탈 청소년상담에는 아직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 안에 존재하는 각각의 하위 개념은 다음과 같다.

- 구조화된 상담진행의 어려움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의 특성으로는 구조화된 상담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뢰감 형성의 어려움, 시간개념의 부족, 상담지속의 어려움, 단기상담으로 인한 상담종결의 어려움을 하위 개념으로 묶을 수 있다.

- 북한이탈 청소년상담의 과제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의 또 다른 특성으로는 북한이탈 청소년상담의 과제를 하위영역으로 꼽을 수 있는데 자기노출에 대한 저항, 문제의 복잡성,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북한이탈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지원 체계의 미흡 등이 과제로 꼽혔다.

㉕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상담자 교육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상담전문가 및 현장전문가들은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해서는 상담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들이 말하는 상담자 교육이란 청소년상담자의 역량강화,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해 미리 알아야하는 지식,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상담전문가의 태도,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상담전문가의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상담자 교육의 하위 영역은 다음과 같은 하위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 청소년상담자 역량강화의 필요성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상담자 교육을 하위 영역으로 나누면 첫째로 청소년상담자 역

량강화의 필요성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안에는 사전 상담자 교육의 부족, 위기관리의 어려움, 감정 다루기의 힘들, 환경적 문제에 대한 개입의 어려움이라는 하위 개념이 존재한다.

- 상담자가 알아야 할 선행지식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상담자 교육의 하위 영역에는 상담자가 알아야 할 선행지식이 있는데, 이에는 문제에 대한 문화적 차이, 북한사회 및 북한이탈 과정에 대한 이해, 북한이탈 청소년의 배경과 특성 이해, 북한의 학제이해, 북한이탈 청소년 정책 및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개인차 이해라는 내용이 포함된다.

- 상담자 태도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상담자 교육으로는 상담자 태도가 있는데, 상담자 선입견 배제, 상담자의 진솔성, 소진예방을 위한 상담자 자기관리를 그 하위 개념으로 삼고 있다.

- 상담자 역할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상담자 교육의 마지막 하위 영역은 상담자 역할이 있는데, 지지체계 연계인으로서의 역할, 안정적인 지지자 역할, 따뜻하고 한결같은 상담자 역할을 하위 개념으로 꼽을 수 있다.

㉞ 적합한 상담방식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상담전문가 및 현장전문가들이 제시한 적합한 상담방식을 상담의 형식, 방법, 기법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담형식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의 적합한 형식으로는 개인상담선호가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매체활용 및 현장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장기상담의 필요성이 꼽혔다.

- 상담방법

적합한 상담방식의 하위 개념으로는 적응을 위한 심리교육, 존중과 지지적 접근, 상담자와의 신뢰로운 대인관계 경험 우선, 현실기반의 문제해결 중심, 복지지원 병행이 제시되었다.

- 상담기법

적합한 상담기법으로는 상담자 자기개방, 솔직하고 직접적인 표현,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표현, 신체접촉을 통한 라포형성,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 규칙을 강요하지 않음, 버터주기 등이 제시되었다.

④ 상담전문가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시사점

상담전문가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북한신분에 대한 노출에 대한 부담감 및 자신의 심리적 측면의 개방에 대한 어려움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또래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남한 생활 적응을 위해 무엇보다도 대인관계에서 긴장을 풀고 자신을 보여주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 상담장면에서는 특히 상담자의 진솔한 태도와 비밀보장 유지 등의 윤리적 측면이 매우 중요 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북한이탈 청소년은 상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 및 인식은 긍정적이기 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태도가 형성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북한에서서의 '상담' 문화 경험 부재도 중요한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자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담초기 상담구조화 시간을 충실히 가지면서 상담에 대한 안내 및 상담자와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셋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호소문제를 살펴보면, 남한 청소년과 유사하게 학업, 대인관계, 진로, 가족 문제등의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전 연구진들이 예상했던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남한 생활 적응을 위해 당면한 현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훨씬 더 크며, 내면의 불안 및 두려움 등의 심리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이유로, 프로그램 개발 시, 북한이탈 청소년이 호소하는 문제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구성하되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여 추후에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북한이탈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 상담자는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사전지식을 교육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기초적인 배경지식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신뢰로운 라포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효과적인 상담 진행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북한이탈 청소년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이 시사된다.

다섯째,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적합한 상담형태로는 개인상담이 집단상보다 더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거주분포현황이나, 심리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상담자가 유념해야 할 상담태도로는, 가식적이지 않고

진솔한 태도로 내담자를 대하며, 선부를 공감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에게 대한 신뢰가 부족한 북한이탈 청소년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상담자의 진솔한 태도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3) 북한이탈 청소년대상 심층면접 결과 분석

① 조사대상 및 내용

북한이탈 청소년과의 심층면접을 위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대안학교들에 연락을 하여 자원자를 모집하였다. 해당 학교의 담당교사 및 실무자와 접촉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면접 내용에 대해 안내한 후, 면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하는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 1명과 대안학교 학생 11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중 전문적인 심리상담 경험이 있는 학생은 총 4명이었다.

북한이탈 청소년 심층면접을 함께 동반한 이유는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개입프로그램 수혜자의 입장에서 어떤 요구도가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시 어려운 점이 무엇인 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때 북한이탈 청소년의 심리적인 어려움과 해결방식을 질문해봄으로써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프로그램에서의 효율적인 개입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상담에 대한 인식과 의사, 상담에 대한 기대, 상담자 역할, 상담경험을 인터뷰함으로써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의 특수성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이를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개입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다. 이를 통해 남한의 주류문화권에서 통용되는 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아닌 소수자 내담자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타협점을 찾음으로써 이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존중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상담에 대한 요구도 및 상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에 연구진회의를 통해 구성된 반구조화된 면접용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내용은 남한 적응 시 어려웠던 점과,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담이나 상담에 대한 의사는 어떠한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상담경험이 있는 경우, 도움이 되었던 상담자 태도는 어떠한지 이때 경험한 상담은 어떠하였는지 등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세한 질문 내용은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1.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심층면접에 사용된 질문내용

질문내용
1) 남한 사회 적응 시 어려웠던 점은? 2)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식은? 3) 북한이탈 청소년이 생각하는 상담이란? (상담자 역할/상담에 대한 기대) 4) 북한에서의 상담 경험은? 5) 남한에서의 상담 경험은? 6) 도움이 되었던 상담자 태도는? 7) 전문적 심리상담에 대한 의사는?

면접에 앞서 면접에 참여하는 실시자들은 사전 모임을 통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검토·숙지하였으며, 면접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루어졌다. 면접에 참여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인터뷰 내용에 대한 녹취 및 연구자료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인터뷰 내용 활용 시 개인적인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것을 고지하였다. 심층면접은 1인당 약 40분에서 60분 정도로 이루어졌다. 면접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2. 면접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구분	성별	나이(만)	남한거주기간	전문적심리 상담경험유무
1	여	21세	4년	무
2	여	16세	8년	무
3	여	16세	4년	무
4	남	20세	6년	무
5	남	18세	5년	무
6	여	20세	10개월	무
7	여	20세	5년	무
8	여	18세	5년	무
9	여	20세	1년 미만	유
10	여	24세	2년 반	유
11	여	19세	6년	유
12	여	17세	4년	유

②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우선 면접 내용을 문서화하여 면접내용 축어록을 작성하였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본 연구진의 연구자들이 각각 축어록을 읽고, 면접용 질문을 토대로 의미가 같은 내용을 하나의 주제로 내용을 정리하는 영역 부호화 작업을 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진들이 모두 함께 모여 개인별로 정리된 영역부호화 내용에 대한 토의과정을 통해 영역 부호화 작업을 한 번 더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역별로 정리한 내용을 취합하여 각 영역의 내용을 요약·핵심적인 개념을 도출하였다.

③ 청소년 심층면접 분석 결과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참조)

㉠ 남한 적응 시 어려웠던 점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생활 적응 시 어려웠던 점들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언어차이

에서 오는 어려움,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 학업에서의 어려움, 문화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북한 사람에 대한 거부감, 외로움 불안 등과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남한 입국 후, 남한 생활을 하면서 소비되는 비용 뿐 아니라, 입국 시 소요되었던 비용 및 북에 있는 잔류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비용 등, 전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 언어의 차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였는데, 외래어 사용이 많은 남한 언어 및 청소년들 사이에서 오가는 언어들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적응 시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언어 차이는 또래와의 의사소통이나 학업 적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또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남한 친구들과 친해지기 어렵다고 호소하거나, 학제의 차이 및 사전학습경험 부재로 인한 학업의 어려움도 적응 시 힘들었던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기존 사회가 아닌, 남한 사회의 문화를 잘 몰라서 입국 초기 힘들었다는 사례도 있었으며, 남 북 대치 상황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적대감을 북한 사람에게 투사하는 남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도 혼자 탈북한 청소년의 경우 외로움이나 불안, 그리고 청소년기에 겪을 수 있는 사춘기 혼란감을 겪어 힘들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 지원 받은 내용

남한 정착 시 지원받은 내용으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경제권을 갖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이기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지원을 받은 건 없다는 보고도 많이 있었다.

㉡ 힘들 때 도움 받은 대상 (도움 요청 대상)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본 결과, 교사나 부모 등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자신의 속마음을 쉽게 내보이지 않는 북한의 사회적 상황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보일 수 있는 특성으로 여겨지며, 그로 인해 자신의 감정이나 힘든 점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 자기 개방이 힘든 것으로 보여진다.

㉢ 상담희망 영역

상담을 받게 된다면 받고 싶은 영역을 조사한 결과, 진로선택과 관련된 정보제공을 받

고 싶다는 의견과, 또래관계에서의 대인관계 측면에서의 도움, 그리고 남한의 문화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싶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남한에서 오래 생활했거나 상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자기를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㉞ 상담에 대한 인식

• 남한에서의 상담경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본인이 '상담'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험 중,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던 측면과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측면을 알아보았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상담 장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자기 편에서 위로해 주고 공감해 주어서 좋았던 점이나, 문제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 받았던 경험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낮은 상황과,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받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측면은 불만족스러운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담자에 대한 기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상담자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진솔한 마음과 신뢰로운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식적이지 않고 진심어린 태도로 자신을 대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나 조심성이 많은 자신들을 부드럽게 대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상담자의 모습을 기대하는 청소년들이 많았다. 또한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민하는 내용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길 바라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앞서 남한에서 상담 경험 중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 나왔듯이, 마음이 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무언가 명확한 답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상담장면에서도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 상담의도: 높지 않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문적 상담을 받고 싶은 의향을 물어 보았을 때, 피상적으로는 받을 것이라는 응답도 있었으나,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했을 때는 별로 받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 상담의도 저해 요인

상담을 받고 싶지 않은 이유는 크게 세가지 측면으로 요약되었다. 우선, 자신의 고민이나 심리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을 개방하

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 다른 이유로 추측되는 부분은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이 부족해서 비밀보장에 대한 두려움도 크고, 이로 인해 민감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라는 문화가 부재한 북한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힘들 때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고려하지 못하며,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일 반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되기에 상담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선호하는 상담방식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상담방식은 집단상담보다는 개인상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상담의도 저해요인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대화로만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보다는 그림그리기 등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상담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흥미롭게 생각하며 더 편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구성단계

1) 프로그램 내용 선정 배경

① 북한이탈 청소년 심층면접 결과를 통한 요구도 반영

본 프로그램의 세부 주제를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부분은 프로그램 대상인 북한이탈 청소년의 상담 요구 내용이었다. 북한이탈 청소년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와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결과를 보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경계와 불신기제가 있지만 친밀감 형성 이후에는 그 대상에게 무한신뢰를 보이는 특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자기를 노출하는 것의 어려움, 특히 북한 출신을 드러낼 것인지 숨길 것인지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남한 친구교제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이성교제 집착, 학교부적응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차이 및 진로, 학업 등 적응 시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들도 제시되었지만, 진로 및 학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하나센터 및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단체에서 제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되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즉 또래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하였다.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

년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난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봤을 때, 타인에 대한 경계와 불신감이 크고 눈치를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나 남한에서의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유발할 것으로 추정되기에, 관계 형성 및 대인관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기술들을 제공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프로그램에서 다룰 사회기술을 선정하는 과정도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직접 설문을 실시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총 52명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사회기술을 제시한 후, 이 중 자신이 배우고 싶거나 대인관계 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회기술들을 선정하게 하여 총 6가지의 사회기술의 선정하였다.

② 청소년기의 또래관계 중요성 고려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중 하나인 또래집단에서의 관계형성 경험은 북한이탈 청소년에게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사회성을 키우며 그 속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친밀감 등의 친사회적 행동들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원만한 또래관계를 통해 정서 및 인지발달이 촉진 될 수 있기에 청소년기의 만족스러운 또래관계 경험은 이후 건강한 삶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며(Hartup, 1989), 성인이 된 후의 사회적응도 예측가능하게 한다. 즉 또래집단에서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소속감 및 지지망을 잘 형성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고 학업적 성취 또한 더 많이 이루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심희옥, 1998). 반면 만족스러운 또래관계 경험이 부재한 청소년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 사회적 및 심리적 기능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Jarvine & Nicholls, 1996), 또래 안에서 수용받지 못한 청소년들의 경우 비행행동의 경향성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문은영, 1994)는,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의 형성 및 유지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가족보다는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또래관계를 통해 성장하며 사회적 관계를 넓혀가는 청소년들에게 또래관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가족과 분리되어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 및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는 집단이기에, 또래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2)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선행연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심층면접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이탈 청소년의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원리로 아래의 4가지 내용을 도출하였다.

① 북한이탈 청소년과의 빠른 친밀감 형성과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다른 일반청소년들과는 상담자의 역량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주요 구성요소로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및 기초정보 교육을 제공한다. 북한이탈 청소년 전문가들은 사전 상담자 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담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위기관리의 어려움, 감정 다루기의 힘들, 환경적 문제에 대한 개입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을 위한 상담자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상담자 교육 프로그램에는 상담자 알아야할 선행지식(문제에 대한 문화적 차이, 북한사회 및 탈북과정에 대한 이해, 북한이탈 청소년의 배경과 특성 이해,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개인차 이해)과 상담자 태도(상담자 선입견 배제, 상담자의 진솔성, 소진예방을 위한 상담자 자기관리), 상담자 역할(연계인으로서의 역할, 안정적인 지지자 역할, 따뜻하고 한결같은 상담자 역할),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적합한 상담방식으로서의 상담형식(개인상담 선호, 매체활용, 현장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장기상담의 필요성), 상담방법(적응을 위한 심리교육, 존중과 지지적 접근, 상담자와의 신뢰로운 대인관계 경험 우선, 현실기반의 문제해결 중심, 복지지원 병행), 상담기법(상담자 자기개방, 솔직하고 직접적인 표현, 버터주기,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표현, 마음 열 때 까지 기다려주고 인내, 규칙을 강요하지 않음, 신체접촉을 통한 라포 형성)을 포함시킬 것이다. 이러한 상담자 교육을 통해 상담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증진시킨다면, 북한이탈 청소년들과의 친밀감 형성 및 적응문제 해소에 빠르게 개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상담자들이 받아야 할 교육내용은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에 포함시켜, 프로그램 운영 교육을 하기 전에 습득하도록 한다.

②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에 정착하기 시작한 후 3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프로그램은 남한 정착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정착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초기 적응기간에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유형 중, 또래관계 형성 시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학교생활 및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한다.

③ 프로그램 형식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상담 접근을 기본으로 구성하되,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활용가능 한 형식으로 구성한다. 자기개방의 어려움과 타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성과 대한민국 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현황을 감안해 볼 때, 집단의 형식을 취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집단 상담프로그램으로도 활용 가능한 형태의 개인상담 형태의 대인관계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상담동기 및 참여율을 높이고자 한다.

④ 북한이탈 청소년 유형별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문제유형을 세분화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많은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자 및 현장전문가들은 간편하게라도 북한이탈 청소년의 유형을 구분해서 상담매뉴얼을 개발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에 북한이탈 청소년의 주 호소 문제로 범주화되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이탈 청소년 문제를 세분화시켜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리스트를 제공하고자 한다.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전문가 및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언급하였던 주 호소문제를 크게 6가지 범주(학업, 진로, 심리정서, 가정, 대인관계, 위기 및 비행)로 요약하여, 이중 어떤 요소들이 더 시급하고 현재 어려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가를 판단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여 시급한 문제영역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3)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 이론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근거를 이루고 있는 이론은 인지행동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민감성 및 원인에 따른 결과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인과적 사고, 그리고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결과적 사고 등 다양한 능력들이 필요하다. 즉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해 인지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적응문제를 보이는 아동·청소년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중, 인지행동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 높은 효과성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으며(전명순, 권일남, 2012; 이현주, 2011; 김선하, 김춘경, 2010). 우울이나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를 다루는데도 인지행동적 접근이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결과(박은정, 김은정, 신민섭, 2008; 하은혜 외, 2004)도 보고되고 있다.

인지행동 접근의 시작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우울 및 불안,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등의 치료에 적용되었으나, 높은 치료적 효과를 기반으로 점차 아동 청소년들에게도 인지행동 접근을 토대로 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성 증진 및 대인관계 기술 습득, 자기주장 훈련 등을 통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 또래 및 대인관계 향상을 위해서는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지내용을 탐색하여 수정하고, 대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사회 기술의 습득을 통해 장기적 적응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기에, 인지행동 접근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4)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상담개입 프로그램의 내용

① 프로그램의 목표

본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인 자기 이해를 통해 자존감 향상을 도모한다.

둘째, 대인관계 기술을 증진하여 남한생활적응을 돕는다.

② 프로그램 참여 대상

본 프로그램은 남한에 입국한지 3년 미만의 북한이탈 청소년 중, 문제영역체크리스트에서 대인관계 영역에 주요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③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 상담자 대상 교육내용

본 프로그램은 북한을 떠나 현재 남한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으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접해왔던 청소년들과는 성장배경 및 심리적 특성이 상이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상담하거나 교육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북한이탈청소년을 상담하기에 앞서 그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전지식을 교육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은 이를 위해, 프로그램의 구성내용 안에 북한이탈청소년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도 포함시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담자 대상 교육 내용

1.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2. 탈북과정에 대한 이해
3.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체계 및 정책
4.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이해
5.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상담자의 태도와 역할

㉞ 프로그램 내용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한 회기당 약 50분으로 진행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세부 구성은 표 13의 내용과 같다.

표 13. 프로그램 내용

구분	회기명	목표 및 내용
1회기	친해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에 대한 이해 및 참여 동기 고취시키기 • 상호 신뢰감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에 대한 소개 및 친밀감 활동 - 상담프로그램 설명 - 약속정하기 - 자기소개하기 -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목표
2회기	나, 너, 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관계 이해하기 • 친구관계 특성 인식하고 남한 친구관계에 대한 두려움 해소하기 • 청소년 시기의 발달 특성 및 자신의 친구관계 특성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의 의미(남북한 비교를 통한) - 청소년기 이해 - 친구관계 살펴보기
3회기	숨은 보물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대인관계에 대한 차이 수용하기 • 남한 친구관계의 특성 인식하고 남한 친구관계에 대한 두려움 해소하기

구분	회기명	목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시기의 발달 특성 및 자신의 인간관계 특성 이해하기 - 인간(대인)관계에서의 장단점 - 인간(대인)관계 어려움에서 느껴지는 감정인식
4회기	나의 감정과 생각을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경험을 통해 감정과 생각을 인식하기 - 나의 감정 알기 - 감정과 생각에 대한 교육 - 나의 감정과 생각을 인식하기 - 나의 경험에서 감정과 생각을 인식하기
5회기	생각 점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되지 않는 생각을 통해 야기되는 감정을 인식하기 • 도움되지 않는 생각에 대한 생각점검 방법을 학습하기 • 생각점검 후 달라지는 감정 및 생각을 파악하고 새로운 행동을 선택하기 -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의 관계 탐색 - 생각점검하기 - 적용해보기
6회기	사회 기술 습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기술을 습득하기 - 경청하기 - 허락하기 - 칭찬하기
7회기	사회 기술 습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기술을 습득하기 -사과하기 -자기표현하기 -자기마음열기
8회기	프로그램 마무리 및 다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배우고 느꼈던 점을 나누고 상담 종결 후 문제 발생 시 대안 행동에 대해 정리하기 - 지난 상담 내용 정리 - 장애물 극복 방법 생각해보기 - 상담 평가

다. 프로그램 평가단계

본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개입 프로그램 교육을 원하는 시군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상담자 18명을 대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개입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상담자 대상 교육의 내용은 우선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이탈 청소년 이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고, 다음으로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개입 프로그램 운영방법에 대해 교육하였다. 상담자 교육실시 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의견을 수집하였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 1인과, 북한이탈 청소년 현장전문가 1인으로부터 프로그램 내용타당도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프로그램 평가에서 일차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나, 현실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할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모집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에,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평가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상담자 및 전문가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향후 수정 및 보완계획을 수립하였다.

1) 상담매뉴얼 시범교육

① 시범교육 평가의 개요

본 상담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수집하였다. 시범교육은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에서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개입 프로그램 교육을 희망하는 청소년 상담자 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교육시간은 총 7시간이었다. 교육에는 본 책임 연구진 및 공동연구진 3인이 강사로 참여하였으며, 교육내용은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4. 시범교육 구성

영역	세부 내용
전반부 (북한이탈 청소년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 북한이탈과정에 대한 이해 •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이해 •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이해 •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상담자의 태도와 역할 •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영역별 유의점
후반부 (상담 프로그램 운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 청소년과 라포형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과 대처방법 • 사회기술훈련

② 평가도구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평가에서는 참가자 관점의 프로그램 평가도구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참가자 관점의 프로그램 평가도구는 프로그램의 목적, 내용, 방법, 자원, 교육·훈련 환경, 훈련 담당자 등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는데(Sanderson, 1995, 이호준, 2006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양미진 외(2011)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프로그램 구성 내용 및 현장활용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15. 참가자 관점 평가도구의 세부 내용

영역	세부 내용
프로그램 목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내용이 북한이탈 청소년 자존감증진과 사회기술훈련 증진이라는 상담 목적에 부합한가? • 교육 내용이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이 되었는가? • 교육 내용이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에 필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 교육 내용이 상담자 연수과정 운영으로 적절한가? • 교육 내용이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자들의 관심과 동기를 끌어낼 수 있을만큼 매력적인가? • 전체 내용 구성이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에 도움이 될 것인가?
프로그램 항목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재 현황 및 실태 • 북한이탈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및 호소문제 이해 • 북한이탈 청소년의 상담개입 프로그램 운영방법
프로그램 현장활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상담 프로그램 개발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상담 프로그램이 개발 목적에 맞게 잘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상담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활용되기에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상담 프로그램이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적용할 경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상담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활용된다면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③ 참여자

시범교육 참여자는 전국 청소년상담자 18명이었다. 이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상담원 또는 청소년동반자로서 상담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유자이거나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 관련 실무경험을 갖춘 이들이었다.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16명(88.9%), 남성 2명(11.1%)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39.88세(표준편차 7.93세)로 나타났다.

④ 평가 결과

우선 참여자적 관점의 평가에 따라 상담매뉴얼 내용 및 구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평가 결과, 모든 문항에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가장 동의도가

높았던 내용은 교육내용이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 목적에 부합되었다는 점(100점)과 교육내용이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이 되었다는 점(97.65점)이었다. 반면, 교육내용이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자들의 관심과 동기를 끌어낼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지 묻는 문항과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에 필요한 요소로 구성되었는지 묻는 문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표 16. 상담매뉴얼 내용 및 구성 평가 결과

지표	평균 (100점 환산)
교육 내용이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 목적에 부합하는가?	100
교육 내용이 북한 이탈 청소년 상담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이 되었는가?	97.65
교육 내용이 상담자 연수과정 운영으로 적절한가?	94.12
교육 내용이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에 필요한 요소로 구성되었는가?	94.12
교육 내용이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자들의 관심과 동기를 끌어낼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가?	90.59
전체 내용 구성이 북한 이탈 청소년 상담에 도움이 될 것인가?	97.65

다음으로 상담매뉴얼 구성영역에 따라 상담자들이 도움을 받는 정도를 평가하였다. <표 17>을 보면 북한이탈 청소년 현황 및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100점)과 북한이탈 청소년의 주요 적응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97.65점)이 가장 동의도가 높았다. 상대적으로 동의도가 낮은 내용으로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개입의 원리와 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94.12점)과 북한이탈 청소년 사례에 대한 문제영역별 접근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90.59점)이 나타났다.

표 17. 구성역역별 평가 결과

지표	평균 (100점 환산)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황 및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00
북한이탈 청소년의 주요 적응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97.65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 개입의 원리와 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94.12
북한이탈 청소년의 대인관계기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95.29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개입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96.47
북한이탈 청소년 사례에 대한 문제영역별 접근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90.59

다음으로 상담매뉴얼의 현장활용도에 대한 평가 결과는 <표 18>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8. 상담매뉴얼 현장활용도 평가 결과

지표	평균 (5점기준)
본 상담프로그램 개발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본 상담프로그램 개발 목적에 맞게 잘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94
본 상담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활용되기에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47
본 상담프로그램을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적용할 경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71
본 상담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활용된다면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4.76

동의도가 가장 높은 내용은 '본 상담프로그램 개발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본 상담 상담프로그램 개발 목적에 맞게 잘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94점)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장에서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상대적으로 동의도가 낮은 문항은 '본 상담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활용되기에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47점)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담매뉴얼의 내용에 대하여 참여자들이 준 의견을 정리하면 표 19에 나타난 바와 같다. 참여자들은 본 상담매뉴얼이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실적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고, 내담자 스스로 남한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이 북한이탈 청소년이 남한생활 적응에 있어서 갖는 대인관계 어려움에 초점화되어 깊이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성에 맞추어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적당한 예시가 있어서 상담진행에 활용하고 참고할 수 있어 유익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북한이탈 청소년이 느끼기에 인지행동접근이 다소 어렵고 딱딱한 부분이 있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한다는 의견과 참고를 할 수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 사례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등 보완해야할 점에 대한 의견 또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표 19. 상담매뉴얼에 대한 종합 의견

영역	의견 예시
좋은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이탈 청소년의 현실적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도록 구성했다. • 체계적으로 이론과 실무를 경험하며 복합적으로 잘 개발된 것 같다. • 상담개입에 매우 효율적이고 내담자도 스스로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P/G이다. •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고, 사례를 만나면 상담진행에 활용하고 참고할 수 있어 유익할 것 같다. •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P/G을 구성한 것 같다. • 대상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과 통계를 통해서 현상 중심형 프로그램이다. • 구체적이고 구조화 되어 적용 가능하다. • 특화(대인관계)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깊이가 있다.
보완해야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밀감 형성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더 제시되었으면 좋겠다. • 조금 어렵고 딱딱한 부분이 많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활동지에 그림이나 만화 등이 많았으면 좋겠다. • 문화정체감을 적응적(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 • 상담 진행된 사례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 • 8회기를 상담자가 자율적으로 새롭게 짤 수 있는 tip을 주면 좋겠다.

구성영역별로 살펴보면 현황에 있어서 전문적이면서 현실을 잘 반영했고 북한이탈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주요 문제영역에 대한 자료가 보충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소년의 특성 및 호소문제 이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요구조사를 반영하여 6개의 사회기술 구성한 것이 좋았다는 의견과 북한이탈 청소년이 겪는 대인관계에서의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게 되어서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반해 주요 적응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들이 보완되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상담 개입모형과 관련하여 대상에 따른 상담기법이 잘 구성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나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인관계 기술 향상에 기여 여부와 관련하여 유형화된 프로그램 구성으로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프로그램 운영방법 이해 관련하여 북한이탈 청소년 사례를 접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알게 되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제영역별 접근방식 관련하여 상담 장면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인지 부분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는 의견과 문제영역 중 대인관계에 편중되어 있어 포괄적인 문제를 접근하기 부족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20. 구성영역별 의견

영역	의견 예시
현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특성, 교육 방법 정도 매우 도움 되었다. • 북한 청소년 주요 문제 영역에 대한 자료가 보충되면 더 좋겠다. • 북한사회 교육에 대한 특성이 북한이탈 내담자 이해하는데 도움 되었다. • 전문적이면서 현실을 잘 반영했다. • 북한 이탈 청소년의 특성을 이러닝보다 더 많은 부분을, 실제적 부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일반적인 생각에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한 확인이 도움 되었다. (학제, 관련기관)
특성 및 호소문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적응 문제에 대한 구체적 현황들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ex) '학업중도 탈락률', '부적응의 구체적인 실태' 등 • 적응 문제와 발달과업상의 문제를 연결하여 보다 구체화 하면 좋겠다. ex) U자 적응 유형과 정체감 형성에서 두 문화 경험의 영향. • 체제의 차이가 클 것으로 보았으나 대인관계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예상치 못했다.

영역	의견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락받기 등 일반 상담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넣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런 부분을 실제로 설문을 통해 조사를 했기 때문에 더욱 신뢰가 간다. • 교육이전에 만난 사례에 대하여 비교할 수 있는 면이 도움 되었다.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 개입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기법(대상에 따른)이 잘 준비 되었다. • 실제로 운영해 보아야 이해가 될 것 같다. • 북한 이탈 청소년의 이해 등은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러나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다.
대인관계기 술 향상에 기여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자체는 좋다. 오늘의 청소년이 이질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왕따 문제가 걱정된다. •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특히 유형화시켜 도움을 줄 수 있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프로그램 운영방법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측만으로 상상하던 분야를 실제로 확인(인지)하였기 때문에 대인관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 • 실제적인 실습을 해보았으면 더 좋을 듯 하고 후에 아이들과 P/G 돌려본 후 더 많은 의견이 나올 것 같다.
문제영역별 접근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이(인지, 사고적 부분)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 • 다양한 문제영역별 접근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느낀다. •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었다. • 대인관계에 편중되어 있어 포괄적인 문제를 접근하기 부족한 것 같다.

2) 전문가 평가 결과

① 전문가 대상 프로그램 내용 타당도 평가

다음으로 본 프로그램에 대하여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에 대한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인과,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에 대한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상담사 1인에 의하여 자세한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내용 타당도 검증은 <표 15> 현장 활용도 평가 문항을 활용하여 상담 프로그램의 시의 적절성, 목적성, 실용성, 효과성, 현장기여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매뉴얼의 내용과 형식에서 세부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2인의 전문가로부터 현장 활용도 평가 결과와 세부 의견을 정리하였다.

② 전문가 내용타당도 평가 결과

우선 상담매뉴얼 현장활용도에 대하여 전문가 2인은 5점 만점 기준 평균 4.6점의 높은 평가를 제시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상담매뉴얼의 시의적절성에 대하여 두 전문가 모두 '매우 그렇다(5점)' 라고 응답하였으며, 목적성, 실용성, 유익성, 현장 기여도에 있어서는 평균 4.5점의 동의도를 나타내었다. 즉, 상담매뉴얼 내용타당도 평가에 참여한 연구 전문가 1인과 상담전문가 1인은 본 상담매뉴얼이 타당하게 개발되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상담매뉴얼 현장활용도에 대한 전문가 2인 평가 결과

지표	평균 (5점 기준)
본 상담프로그램 개발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본 상담프로그램 개발 목적에 맞게 잘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5점
본 상담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활용되기에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5점
본 상담프로그램을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적용할 경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5점
본 상담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활용된다면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4.5점

상담매뉴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전문가들은 매뉴얼 전체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하여 매뉴얼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청소년용 활동지에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반응 예시를 보충해야한다는 의견과, 북한이탈 청소년과 탈북 청소년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활동지 예시에서 어머니를 등장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친모와 사는 경우가 많지 않고, 상당수는 어머니에 대한 애증이 많거나 행방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예시로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회기술을 다루는 회기에서 기술의 순서를 북한이탈 청소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성상 사과하기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도입단계에서 이런 남북한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22. 전문가평가 종합의견

구분	종합의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에 북한이탈 청소년 반응의 예시 보충되었으면 함. • 북한이탈 청소년과 북한이탈 청소년 등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니 통일하면 좋겠음. • 북한 속담은 내담자의 고향, 북한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라 잘 모를 수도 있음. 속담은 주로 평양 중심으로 정리된 것이 많아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알고 있는 속담을 역으로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즉, 남한의 속담을 하나 이야기하고 이와 비슷한 의미에 속담이 있냐고 묻는 방식으로. • 남한과 북한 친구의 차이와 공통점에서 공통점은 강조되고 차이를 생략되었음. 차이를 먼저 다루고, 공통점을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겠음. • 역기능적 사고 중 북한이탈 청소년이기 때문이라는 예시를 보충하면 좋겠음. • Tip에서 내담자가 끔찍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좀더 내용 파악을 위해 “혹시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니?”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은 괜찮으나 불편해하는 듯하면 바로 “불편한 이야기면 다음에 기회되면 하자. 그 얘기는 그만할까?” 정도로 정리하고, 크게 불편해 하지 않는다면 조심스럽게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도 무방함. • 칭찬수용하기의 예시로 어머니가 등장하는 부분은 다른 상황으로 대체했으면 함. 북한이탈 청소년 중에는 친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일

구분	종합의견
형 식	<p>부 있지만 상당수는 어머니에 대한 애증이 많거나 행방을 모르기도 하며, 일부는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어 어머니를 등장시키지 않았으면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에 대한 이해를 보강할 것. 갈등에서 무엇인가 사과할 일이 먼저 생긴 후에 사과하기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임. 갈등--> 자기 주장--> 사과하기로 내용을 변경해도 좋겠음. • 장애물 대처 방법에 대한 예시 포함하여 내용 보강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관계 어려움에서 느껴지는 감정 인식하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강조하여 대인관계가 어렵다는 선입관을 제시하고 있음. 4회기처럼 중요한 감정, 원하는 감정, 중요하지 않은 감정 등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겠음. • 소 제목 내용의 순서를 변경하면 좋겠음. ‘경청->허락받기-> 칭찬 수용하기’ 순서가 좋을 것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칭찬을 수용하는 경우보다 더 일반적일 수 있음. • 라포 형성 차원에서 OX 표시하기는 좋은 방법이나 내용에는 어려운 한자어 또는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었으면 함. 가령, ‘액션 영화’ 가 무언지 모르는 학생도 분명히 있음. • 대인관계에서 잘하고 있는 점과 잘못하고 있는 점을 5가지 모두 이야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주지 않으면 (잘한다, 못한다)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못할 수도 있음. 아니면 아예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야기하면 솔직한 자기표현에 대해 칭찬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으면 함. • 4회기에서는 라포형성 차원에서 ‘화나다’ 에 해당하는 북한식 표현이 어떤 것이 있는 물어보면 내담자의 반응이 좋을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북한에서 사용하는 표현 중에 ‘화’ 와 관련된 표현이 무척 다양하며, 재밌는 말도 많이 있기 때문임. • 사회기술 중 사과하기는 어려운 부분임.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처벌,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특히 북한에서는 ‘총화’ 라는 것이 있어서 일단 사과를 한다는 것은 곧 엄청난 모욕이 되는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음. 따라서 사과를 한다는 것이 북한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도입 단계에서 분명히 하고 진행해야 할 것임.

라.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개입 프로그램 시범운영 교육에 참여한 상담자 평가와 전문가 평가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였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의 수정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대한 부분이며, 또 다른 측면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다.

우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면에서는 프로그램을 모듈식으로 구성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방법에 대한 팁을 제공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경우, 총 8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부터 8회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상담 시 주로 다루는 내용에 따라 크게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부는 1, 2, 3회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상담자와 북한이탈 청소년과의 신뢰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또래관계 형성 시 느끼는 어려움을 공유하는 부분이다. 즉 상담관계형성을 위한 부분으로, 상담자와의 안정적인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내담자의 대인관계 탐색 및 남북문화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부는 4회기 및 5회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역기능적인 사고에 대한 탐색과 점검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3부는 6, 7, 8회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사회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4부는 종결 부분에 해당된다.

즉 구성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적용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상담에 참여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성과 상담 여건에 따라 2부 혹은 3부 중 필요한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상담자 매뉴얼에 팁을 제공하였다. 즉 1부 및 4부는 꼭 필요한 단계로 보았기에, 모든 상담 시 꼭 다루어야 할 부분이지만, 내담자 특성에 따라 2부에 해당하는 4, 5회기 내용을 3회기로 늘려서 진행함으로써 역기능적인 사고가 있을 경우, 이 부분을 충실히 다루어 줄 수도 있음을 알려주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상담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였다.

표 23. 상담자 및 전문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정된 내용

전문가 의견	수정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청소년 주요 문제 영역에 대한 자료가 보충되면 더 좋겠다. 	<p>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생활 적응시 겪을 수 있는 주요 문제 영역에 대한 내용을 상담자 교육 자료에 추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적응 문제에 대한 구체적 현황들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ex) '학업중도 탈락률', '부적응의 구체적인 실태' 등 	<p>적응과 관련된 실질적인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완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기능적 사고' 라는 말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는 낯선 단어일 수 있으니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의견을 구해 '도움이 되는 사고' 와 '도움이 되지 않는 사고' 로 용어를 수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남한 입국 1년 정도 되는 북한 이탈 청소년의 경우 워크북에 있는 단어들이 낯설게 받아들여 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종종 외래어들이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개인상담 진행 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받아볼 워크북에 있는 단어들의 가독성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통해 언어 및 단어에 대한 검수를 받아,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낯설어할 수 있는 외래어 및 단어들을 수정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지에 북한이탈 청소년 반응의 예시 보충되었으면 함. 	<p>상담자용 매뉴얼에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의 예시를 추가 보충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물 대처 방법에 대한 예시 포함하여 내용 보강이 필요함. 	<p>8회기에서 다루는 장애물 대처 방법에 대한 예시를 추가함</p>

전문가 의견	수정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 청소년과 탈북청소년 등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니 통일하면 좋겠음. 	북한이탈 청소년으로 용어 통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속담은 내담자의 고향, 북한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라 잘 모를 수도 있음. 속담은 주로 평양 중심으로 정리된 것이 많아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알고 있는 속담을 역으로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즉, 남한의 속담을 하나 이야기하고 이와 비슷한 의미에 속담이 있냐고 묻는 방식으로. 	속담에 대한 예시는 묻는 방식으로 수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한과 북한 친구의 차이와 공통점에서 공통점은 강조되고 차이를 생략되었음. 차이를 먼저 다루고, 공통점을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겠음. 	남북한 친구의 차이를 먼저 다룬 후 공통점을 이해하는 것으로 수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기능적 사고 중 북한이탈 청소년이기 때문이라는 예시를 보충하면 좋겠음. 	역기능적 사고 예시 부분에 ‘북한이탈 청소년이기 때문에’ 라는 예시 보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Tip에서 내담자가 끔찍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좀더 내용 파악을 위해 “혹시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니?”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은 괜찮으나 불편해하는 듯하면 바로 “불편한 이야기면 다음에 기획되면 하자. 그 얘기는 그만할까?” 정도로 정리하고, 크게 불편해 하지 않는다면 조심스럽게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도 무방함. 	상담자용 메뉴얼에 tip으로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칭찬수용하기의 예시로 어머니가 등장하는 부분은 다른 상황으로 대체했으면 함. 북한이탈 청소년 중에는 친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일부 있지만 상당수는 어머니에 대한 애증이 많거나 행방을 모르기도 하며, 일부는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어 어머니를 등장시키지 않았으면 함. 	내담자의 가정환경을 고려하여(예: 부모 부재 및 사망 등) 부모 관련된 예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tip으로 안내하였음

전문가 의견	수정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제목 내용의 순서를 변경하면 좋겠음. ‘경청→허락받기→ 칭찬 수용하기’ 순서가 좋을 것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칭찬을 수용하는 경우보다 더 일반적일 수 있음. 	<p>‘경청→허락받기→ 칭찬 수용하기’ 로 소제목 순서 변경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포 형성 차원에서 OX 표시하기는 좋은 방법이나 내용에는 어려운 한자어 또는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었으면 함. 가령, ‘액션 영화’ 가 무언지 모르는 학생도 분명히 있음. 	<p>외래어로 표기된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변경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회기에서는 라포형성 차원에서 ‘화나다’ 에 해당하는 북한식 표현이 어떤 것이 있는 물어보면 내담자의 반응이 좋을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북한에서 사용하는 표현 중에 ‘화’ 와 관련된 표현이 무척 다양하며, 재밌는 말도 많이 있기 때문임. 	<p>4회기에서 라포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화나다’ 에 대한 다른 북한식 표현을 물어보는 내용을 보충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관계 어려움에서 느껴지는 감정 인식하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강조하여 대인관계가 어렵다는 선입관을 제시하고 있음. 4회기처럼 중요한 감정, 원하는 감정, 중요하지 않은 감정 등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겠음. 	<p>감정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강조되지 않도록 중요한 감정, 중요하지 않은 감정으로 내용을 수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기술 중 사과하기는 어려운 부분임.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처벌,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특히 북한에서는 ‘총화’ 라는 것이 있어서 일단 사과를 한다는 것은 곧 엄청난 모욕이 되는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음. 따라서 사과를 한다는 것이 북한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도입단계에서 분명히 하고 진행해야 할 것임. 	<p>도입단계에서 사과에 대한 남북한 인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부분을 첨가함</p>

IV. 요약 및 논의

1.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해가 갈수록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는 경제난이나 식량난으로 인해 탈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근래에는 외부정보의 유입으로 인한 체제불신과 자유 및 미래에 대한 꿈의 실현 등으로 탈북의 동기가 변화하면서,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북한이탈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조천현, 2002). 가족단위 입국에 따른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입국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어렵게 북한을 벗어나, 중국 및 제 3국을 거치는 길고 험난한 여정을 겪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낯선 남한 문화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겪게 된다. 그러나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 정부차원의 정착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상담분야에서도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반영된 전문적인 상담개입 매뉴얼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절차에 따라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매뉴얼을 개발하고, 매뉴얼의 적절성을 평가한 후 내용 수정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이론적 배경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입국 현황 및 유형, 심리·사회적 특징을 기술하였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알아보고,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정착지원 체계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기술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개입 매뉴얼 개발을 위하여 북한이탈 청소년 및 상담자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면접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결과들을 분석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요소 및 상담 시 고려해야할 주요 내용들을 추출하였다. 북한이탈 청소년 및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면접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결과,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 영역 중,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현장의 요구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과도 맥을 같이 하는 주제로 관

단되어 북한이탈 청소년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개인상담 매뉴얼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구성요인으로 4가지의 요소를 추출할 수 있었다.

첫째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배경 및 특징과 관련하여 상담자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이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는, 남한에 입국한 기간에 따라 적응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정착기간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세 번 째로는 자기개방의 어려움과 타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 상담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한 개인상담 매뉴얼을 개발함으로써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상담동기 및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초기 개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영역을 탐색해 볼 수 있는 리스트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6가지 범주(학업, 진로, 심리정서, 가정, 대인관계, 위기 및 비행)로 구분된 문제영역리스트를 매뉴얼에 제시함으로써 상담 초반에 더 시급히 개입해야할 영역을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상담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상담 실무자 18명을 대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수집하였다. 교육 후에 참여자 관점 평가를 실시하여 매뉴얼의 시의 적절성, 목적성, 실효성, 효과성, 현장기여도를 평가받았다. 평가 결과, 매뉴얼 내용과 구성 평가에서 모든 문항에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가장 동의도가 높았던 내용은 교육내용이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 목적에 부합되었다는 점과 교육내용이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이 되었다는 점이었다. 반면, 교육 내용이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자들의 관심과 동기를 끌어낼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지 묻는 문항과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에 필요한 요소로 구서되었는지 묻는 문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상담매뉴얼의 현장활용도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 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시의적절하고, 프로그램이 개발목적에 맞추어 잘 개발되었다고 평가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현장에서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현장 활용도에 묻는 문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현장 요구도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할 필요성 있음을 나타낸다.

시범교육 참여자들은 본 상담매뉴얼이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실적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고, 내담자 스스로 남한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이 북한이탈 청소년이 남한생활 적응에 있어서 갖는 대인관계 어려움에 초점화되어 깊이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성에 맞추어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적당한 예시가 있어서 상담진행에 활용하고 참고할 수 있어 유익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북한이탈 청소년이 느끼기에 인지행동접근이 다소 어렵고 딱딱한 부분이 있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한다는 의견과 참고를 할 수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 사례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등 보완해야할 점에 대한 의견 또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전문가 대상 프로그램 평가에서 본 매뉴얼의 시의적절성, 목적성, 유익성, 실용성, 효과성, 현장기여도에 관한 참여자 관점 평가 결과 평균 4.6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또한 매뉴얼 전체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반응 예시를 보충하고 적당한 예시를 통해 청소년에 맞추어 쉽게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기술을 다룰 때 기술의 순서를 북한이탈 청소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성상 사과하기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도입단계에서 이런 남북한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연구보고서와 매뉴얼을 수정·보완하고 학계전문가의 감수를 받아 최종적으로 완료하였다.

2. 논의

본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또래관계 증진을 목표로 북한이탈 청소년 및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상담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선행논문 검토 및 면접 내용 분석 등의 연구진행 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 보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상담적 접근에 있어서의 다양한 시사점 및 의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북한이탈 청소년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매뉴얼의 가장 큰 의의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 증진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 중, 최초로 개인상담의 방식으로 개입 매뉴얼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상담 전문가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에서도 이들을 위한 적합한 상담 방식으로 개인상담을 꼽았으며, 북한이탈 청소년들 또한 개인상담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단체로 모인 장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특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환경적인 여건(거주현황)을 고려하였을 때도, 집단상담보다는 개인상담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되었기에 개인상담의 형식으로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실제로, 상

담자 교육을 진행한 후 피드백을 통해서도 개인상담의 형태로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실제 상담을 진행하는데 있어 더 효율적이고 적용가능성을 높힐 수 있다는 반응이 많았으며, 구조화된 개인상담 매뉴얼이기 때문에 집단장면에서도 충분히 활용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매뉴얼 개발에 있어 북한이탈 청소년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과 요구를 기반으로 개입 주제와 내용을 선정하였다는 점이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2명의 북한이탈 청소년과 11명의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제를 선정하였기에 상담수혜자 및 실무자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었으며, 세부적인 사회기술 내용 선정도 52명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도출된 결과를 근거로 구성하였기에 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 및 활용도는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실무자들의 경우, 진로 및 학업에 대한 지침이나 정보들은 구비되어 있지만,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적응 증진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아 본 연구의 활용가능성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북한이탈 청소년이라는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상담의 효과를 높이고 신뢰로운 관계형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및 지식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우, 남한 청소년들과는 상이하게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탈북 및 입국과정에서 생사를 오가는 힘든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상담자가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상담의 특수성이 있었다. 또한, 학제 및 언어의 차이 등에 대해서도 상담자가 미리 알고 있어야 올바른 정보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에, 상담자 지침서에 상담 전 알아두어야 할 기본 정보들을 제공하였다. 상담전문가 시험교육 시, 상담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 중 프로그램 소개 전 제공된 교육내용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보고하였으며, 교육을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상담자의 불안도 낮아질 수 있었다고 보고하여 교육내용을 매뉴얼에 포함시킨 구성은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을 상담하는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 및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을 상담하는 상담전문가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해주고 실제 상담장면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제공함으로써 상담자의 역량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다섯째, 본 프로그램은 또래관계 증진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지만,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다양한 문제 영역에 대한 탐색 및 개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전문가 및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언급하였던 주 호소 문제를 크게 6가지로 범주화하여(학업, 진로, 심리정서, 가정, 대인관계, 위기 및 비행), 이에 대한 탐색이 가능하도록 리스트를 제공하였으며, 각각의 문제 영역의 내용에 따라 상담자가 어떻게 개입하고 대처해야 할지에 지침서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이탈 청소년의 상담 영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개입 방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매뉴얼 시범교육과 전문가 평가 과정을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지만,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검증을 해보지는 못하였다. 그로 인해 실제 북한이탈 청소년과의 상담상황에서 내담자 및 상담자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될지는 파악해보지 못하였다.

둘째, 상담자의 역량에 따라 상담회기를 조정할 수 있는 모듈식 구조화된 개인상담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라는 단일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로 인해 대인관계 문제와 함께 시급한 경제적 문제, 가족해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등의 복합적인 위기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적용할 경우 구조화된 상담 프로그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셋째,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흥미 있게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림, 만화 같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였지만 보다 활동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지속적인 행동변화를 표상화 시킬 수 있는 사회극이나 동작치료, 영화치료와 같은 활동을 포함시키지는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검증 및 수정보완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을 실제로 적용해본 다음, 그 효과와 어려움을 반영한 다음 피드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때 내담자 평가 뿐 아니라 상담자 평가도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단회적인 평가보다는 지속적인 운영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시간적 추이에 따른 청소년 상담자의 성장 및 변화과정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상담매뉴얼 시범교육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상담사례가 다양하지 않아 그룹형 토의방식이 아닌 강의식 전달에 의존함으로써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제유형별 개입전략에 대한 활용도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추후 북한이탈 청소년 상

담사례가 축적이 되면 심화교육 때 그룹별 토의를 통해 문제유형별 개입 전략에 대한 tip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동료 상담자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북한이탈 청소년 중 역할모델링이 되어 줄 수 있는 멘토 그룹 및 남한 청소년 중 자발적인 참여자를 선발하여 직접 동료에게 활용할 수 있는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올바른 성생활, 진로탐색, 부모와의 의사소통 촉진 프로그램 등 문제유형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경미(2006).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한국사회 부적응 문제와 기독교상담 전략. **복음과 상담**, 7, 117-144.
- 강관혜(2008). 탈북 아동과 부모를 위한 남한사회에서의 심리사회적 적응프로그램 효과.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7(1), 173-193.
- 강성록(2000). **탈북자의 외상척도 개발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숙정(2009). **새터민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셀프파워 증진 프로그램 개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교육과학기술부(2011). **탈북청소년 주요 통계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국회예산정책처(2012).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2**. 국회예산정책처.
- 권부균(2009). **새터민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남한사회적응과정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수영·최정현(2011).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효과성 평가**.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 금명자·권혜수·이자영·이희우(2004). **통일대비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II**. 한국청소년상담원.
- 금명자·권혜수·이희우(2004). 탈북 청소년의 문화적응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95-308
- 금명자·김동민·권혜수·이소영·이희우(2003). **통일대비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I**. 한국청소년상담원.
- 금명자·주영아·김상수·이태성·이자영(2005). **통일대비 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개발 연구 III**. 한국청소년상담원
- 길은배·문성호(2003).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 보고서.
- 길은배·문성호(2003).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와 정책적 함의. **청소년학연구**, 10(4), 163-186
- 김미숙(2004).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선현·송희정·최순주(2009). 미술치료가 내적 스트레스 감소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 탈북아동을 중심으로. **조형교육**, 33, 59-79.

- 김선하·김춘경(2010). 대인관계 집단치료와 인지행동 집단치료가 청소년 우울 및 관련 변인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7(3), 55-86.
- 김선화(2007). **민간단체의 새터민 정신건강 지원 사업현황**. 새터민 전문상담서비스 자원봉사단 Map망 구축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공릉종합복지회관
- 김성화·김현아(2005). 새터민의 상담에 대한 요구도와 도움요청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6(3), 693-712.
- 김연희 외(2009). **북한이탈 청소년 심리사회 적응 평가도구 개발연구**. 무지개청소년센터.
- 김영수(2003). **국내탈북동포들의 정착지원과정 및 살아가는 모습**. 제5회 탈북동포돕기 대학(원)생 자원봉사자 수련회 자료집. 북한인권시민연합·문화일보.
- 김은경(2008). **새터민 정신건강지원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민간협력사업, 「새터민 정신건강지원 특별시범사업」시행기관 워크샵 자료집.
- 김윤영(2002). **탈북 아동들의 남한 학교생활과 정체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미(2008). 아동중심 미술치료를 통한 새터민 아동의 자아개념과 학교생활 수행 향상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15(2), 275-294.
- 김정미(2008). 아동중심 미술치료를 통한 새터민 아동의 자아개념과 학교생활 수행 향상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15(2), 275-294.
- 김진섭(2004). **탈북아동의 남한사회에서의 초기 적응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대(2002).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청소년집단상담의 운영**. 75-108.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현아(2007). **양파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 새터민 상담자의 역할과 과제: 치료적 관계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일반 심포지엄: 308-309
- 김현아·정성란(2008). 새터민의 가족상담 모형 개발. **상담학연구**, 9(3), 1333-1356.
- 김형태(2004). **북한이탈청소년 남한사회적응유형에 관한 통합적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김형태(2010).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 및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17(9), 27-59.
- 무지개청소년센터(2011). **북한이탈 청소년 유형별 특성 이해-학교 밖, 무연고,**

- 비보호 청소년 등. 무지개청소년센터 자료집.
- 문은영(1994). **또래의 수용이 청소년 초기의 고독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경애(2002). **청소년의 신체상, 자존감 및 대인불안 간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정·김은정·신민섭(2008). **우울 위험 집단 아동들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614-615.
- 박선경(1998). **탈북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윤숙(2006).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지영(2001). **사회사업적 관점에서 본 탈북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혜정·길은배·윤인잔·이영란(2006).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변미화·강기정(2005).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2(1), 127-150.
- 서장혁(2003). **탈북청소년의 진로의식 성숙을 위한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 효과**.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선한승(1995). **북한 탈북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적응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심희옥(1998).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부정적 생활사건,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원과 부적응에 관한 중단 연구**. **아동학회지**, 19(2), 35-47.
- 양미진·고홍월·이동훈·김영화(2011).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 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 엄경남(2001).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 원영희(2005). **재미교포 노인의 문화적응 및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연구**. **일립논총**, 11, 151-178.
- 원혜영(2009). **국정감사자료**.

- 유영권(2005). 탈북자들의 적응 스트레스와 목회상담적 대처방안. **기독교상담학 회지**, 9, 177-220.
- 유혜란(2004). **탈북자들의 자아회복을 위한 목회상담적 접근: 자기 심리학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여상(2001).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지원방향: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의 지역화 방안과 민간의 역할**.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 협의회 심포지움 논문집, 1-16.
- 윤여상·김현아·한선영(2008). 남북 문화 간 통합을 위한 새터민 조력자의 교육모형 탐색. **아시아교육연구**, 9(3), 1-28.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윤인진(2000). 탈북과 사회 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 탈북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2), 123-184.
- 이금순·강신창·김병로·김수암·안혜영·오승렬·윤여상·이우영·임순화·최의철(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 이기영(1999). 탈북자 가족구성원의 갈등에 관한 문헌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6, 389-404.
- 이기영(2001).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 문제 유형 분석**.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기영(2002). 탈북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3(1), 175-224.
- 이기영, 성향숙(2001). 탈북자 가족구성원의 가족관계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탈북자 가구주 및 그 배우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7, 243-271.
- 이선운(2005).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래(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수연(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진적분석. **청소년학연구**, 15(1), 81-113.
- 이신숙(2008). **집단미술치료가 새터민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 평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장호(2008). **크로싱-탈북자 및 새터민에 대한 심리적 이해와 상담: 새터민 상담접근의 쟁점: 새터민 정착 상담의 접근 모형**. 한국심리학회 일반 심포지

- 업, 308-309.
- 이장호(1996). 북한출신주민(탈북자포함) 심리사회적 적응 프로그램 개발. **성곡논총**, 28(4), 739-789.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2011). **이주배경청소년** 백서. 서울: 무지개청소년센터.
- 이춘재·오가실·정옥분(1991). 사춘기 신체성숙시기와 심리사회적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89-101.
- 이현심, 박주현, 최덕경(2011).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3(4), 309-341.
- 이현주(2011). 학교생활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행동 집단미술치료의 학교생활적응 및 자기조절능력 향상의 효과검증. **청소년학연구**, 19(1), 31-60.
- 이혜경(2003).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체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향규(2006). **다문화청소년 알아가기 : 새터민 청소년**. 무지개청소년센터.
- 이향규(2007).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 적응 실태와 과제. **인간연구**, 12, 1-17
- 이호준(2006). **참가자 관점 부모교육 평가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창호(2001).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3(1), 175-224.
- 전명순·권일남(2012).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 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소년학연구** 19(6), 149-177.
- 전명희(2011). 새터민 아동-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8(1), 101-123.
- 전우택(1997).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1(2), 109-167
- 전우택(1999).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의 심리적 갈등 구조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탈북자 관련 워크샵 발표 논문
- 전우택(2000).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오름
- 전우택(2005). 통일연구에 있어 사회정신의학 영역. **통일연구**, 9(2), 37-52
- 전우택·유시은·조영아·엄진섭(2005).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 요인: 3년 추적 연

- 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467-484.
- 전우택·유시은·조영아·엄진섭·서승원·홍창형(2005). **의식과 생활만족도**.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편). 웰컴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pp.440-466). 한양대학교출판부
- 전익수(2001). **탈북청소년 초기 정착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정병호, 양계민, 이향규, 임후남, 황순택 (2007). **새터민 청소년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방안 마련 연구**. 서울: 경기도교육청.
- 정진경(2002). 북한사람들의 성역할 특성과 가치관: 탈북자 자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2), 163-177.
- 정진경, 김재우(2005). 차별지각, 차별에 대한 대처전략과 문화적응유형의 관계 : 재한 중국인 유학생 연구. **사회과학연구**, 22(2), 295-321.
- 정현정(2009). 새터민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음악심리치료 적용 연구. **음악치료교육연구**, 6(1), 1-31.
- 정향진(2005). 탈북청소년들의 감정선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1(1), 81-111.
- 조영아(2009).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상담에 대한 요구도와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85-310.
- 조영아·유시은(2006). 새터민 정신건강 전문가의 역할과 개입전략. **통일정책연구**, 15(2), 53-77.
- 조천현(2002). 탈북 경로의 유형 및 실태와 현황; 생계형 탈북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형태로 급증. **북한**, 370, 62-68.
- 조한범·이우영·이금순·전효관(2003). **북한이탈청소년 및 귀국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통일연구원.
- 통일부(2011). **북한이탈주민 정착주민제도**. 통일부.
- 최대한·이인수·김현아(2007). 새터민 아동, 청소년의 적응력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아동교육**, 16(2), 277-291.
- 최명선·최태산·강지희(2006). 탈북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전략 모색. **놀이치료연구**, 12(9), 23-24.
- 최성숙(2003). **탈북청소년을 위한 미술치료**.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승주·전우택·정우진(2005). **종교성향과 우울정도**.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편). 웰컴투 코

- 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pp.568-584). 한양대학교출판부.
- 최명선, 최태산, 강지희(2006). 탈북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전략 모색. **한국놀이치료학회지**, 9(3), 23-34.
- 하은혜·오경자·송동호·강지현(2004).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청소년을 위한 집단행동치료 효과의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2), 263-279.
- 한국교육개발원(2009). **탈북학생의 교육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 한만길(1999).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교육적응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상훈(2006). **집단체험학습적응프로그램을 통한 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연구교사 논문.
- 한성열·이종한·김명자·채정민·이영희(2007).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대인관계와 문화적응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한국심리학회: 사회문제**, 13(2), 33-54.
- 허은영·강혜영(2010).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진로교육연구**, 23(4), 39-55.
- 홍순혜·정익중·박윤숙·원미순(2003).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 향상을 위한연구**. 통일부.
- Baozhen, X. (2007)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seeking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A qualitative explor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Berry, B. (1987). Finding identity: Segregation, integration, assimilation or marginality. In L. Dreidger(Ed.), *Ethnic Canada: Identities and Inequalities*. Toronto: Copp Clark Pitman.
- Gibson, M. A. (1997). Complicating the immigrant/involuntary minority typology. *Anthropology and Education Quarterly*, 28(4), 431-454.
- Hartup, W. W. (1989). Social relationship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American Psychologist*, 44, 120-126.
- Hendricks, J. & Hendricks, C. D. (1979). Concerning Old Age: Interdisciplinary Dimensions, In Hendricks, J. & Hendricks, C. D. (eds.). *Dimensions of Aging: Readings*. Cambridge, MA: Winthrop.
- Jarvine, D. W., & Nicholls, H. G. (1996). Adolescent' s social goals, beliefs

- about causes of social success, and satisfaction in peer relations. *Development psychology*, 32(3), 432-441.
- Joanne, A. T. (2007). *Help-seeking attitude and counseling expectations as predictors of Bermudians' help-seeking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 Koser, K. (1997). Social networks and the asylum cycle: The case of Iranians in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2, 591-611.
- Kruger, R. A. (1998). *Focus group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Marlene, B. S., & Kelly, D. B. (2004). *Obesity and body image*, 1(1), 43-56.
- Meredith, L. S., Wenger, N., Liu, H., & Harada, N. (2000). Development of a brief scale to measure acculturation among Japanese American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1), 103-113.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Taylor, D. M., & Lambert W. E. (1996). The meaning of Multiculturalism in a Culturally Diverse Urban American Area,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6, 727-740.

부 록

1. 전문가 FGI 상세 내용
2. 북한이탈 청소년 면접 상세 내용
3. 시범교육 평가지

부록1. 전문가 FGI 상세 내용

1. 전문가 대상 질적분석 결과 요약 표(6범주, 20하위영역, 79개념)

개 념	하위 영역	범 주
낮선 사람에 대한 경계와 불신	남한사람과의 대인관계	
상처를 쉽게 받음		
눈치를 많이 봄		
생존을 위해 익숙한 거짓말		
친밀감 형성 이후의 무한신뢰		
신분노출에 대한 우려	자기노출의 어려움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성
자기노출 경험 부족		
북한출신 정체성 드러내기의 어려움		
자기노출에 대한 부담		
외로움		
신체적 외소로 인한 열등감	심리 정서적 딜레마	
정서억압		
분노조절의 어려움		
정체성 정립의 필요성		
상담에 대한 인식부족		
상담에 대한 거부감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북한이탈 청소년의 상담에 대한 태도
상담의 유익성에 대한 의심		
남한의 부정적 상담경험		
현실적인 문제로 도움요청	상담이라는 무형의 도움이 낯설음	
비자발적 상담신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정신건강	주 호소문제
실존적 불안		
신체화		
기초학습 경험 부족	학업의 어려움	
남북한의 학업수준 차이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		

개 념	하위 영역	범 주
학교적응의 어려움		
남한 친구교제의 어려움		
이성교제 집착	대인관계 문제	
언어차이		
왕따		
현실적인 기대조정의 어려움		
직업결정 방식의 남북한차이	진로문제	
진로 미결정		
가정해체	가족문제	
가정폭력		
재결합 가정의 문제		
부모의 북한식 양육태도		
경제적 어려움	환경적 문제	
지지체계 부족		
신뢰감 형성의 어려움		
시간개념 부족	구조화된	
상담지속의 어려움	상담진행의 어려움	
단기상담으로 인한 상담종결의 어려움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의 특성
자기노출에 대한 저항		
문제의 복합성	북한이탈 청소년상담의 과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북한이탈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지원 체계의 미흡		
사전 상담자 교육의 부족		
위기관리의 어려움	청소년상담자	
감정 다루기의 힘들	역량강화의 필요성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상담자 교육
환경적 문제에 대한 개입의 어려움		
문제에 대한 문화적 차이	상담자가 알아야 할	
북한사회 및 북한이탈과정에 대한 이해	선행지식	

개 념	하위 영역	범 주
북한이탈 청소년의 배경과 특성 이해		
북한의 학제이해		
북한이탈 청소년 정책 및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개인차 이해		
상담자 선입견 배제		
상담자의 진솔성		
소진예방을 위한 상담자 자기관리	상담자 태도와 역할	
연계인으로서의 역할		
안정적인 지지자 역할		
따뜻하고 한결같은 상담자 역할		
개인상담 선호		
매체활용	상담형식	
현장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장기상담의 필요성		
적응을 위한 심리교육		
존중과 지지적 접근		
상담자와의 신뢰로운 대인관계 경험 우선	상담방법	
현실기반의 문제해결 중심		적합한 상담방식
복지지원 병행		
상담자 자기개방		
솔직하고 직접적인 표현		
버텨주기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표현	상담기법	
마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		
규칙을 강요하지 않음		
신체접촉을 통한 라포 형성		

2. 개념별 구체적인 예시

1)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징

① 남한사람과의 대인관계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남한사람과의 관계는 낯설고 버림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조바심을 낸다. 이렇듯 탈북 청소년이 남한사람과의 신뢰로운 대인관계를 맺기란 조심스럽고 힘든 과정이지만 한번 신뢰감을 맺게 되면 많은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무한한 신뢰를 보인다. 탈북 청소년이 경험하는 남한사람과의 대인관계 경험은 상처로 잘못 인식되거나 끈끈한 정을 느끼게 하는 듯하다.

•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와 불신

아무래도 경험이 다르잖아요? 고 나이 때보다는 성숙했어요. 탈북과정이나 가족이나 북한에서 산 경험이나 여기에서 큰 아이들과 많이 달라요. 아이들이 여기 애들 보면은 어리다고 생각할 때도 많고, 왜냐하면 산전수전 다 겪어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관계 맺고 그렇게 경계도 많이 하고 (포래들하고?) 사람들 하고 전반적으로 다,,이렇게 자기네들에게 호기심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많고 이래서 관계 맺고 그러는 게 시간이 좀 걸려요(사례 5).

• 상처를 쉽게 받음

그니까 제가 처음 갔을 때부터 아이들이 먼저 질문하는 게 선생님 언제 관둘 거예요? 그래서 왜 관됐으면 좋겠어? 그건 아니고,, 이걸 수시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언제든 자기를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사례 4).

• 눈치를 많이 봄

예를 들어 제가 일을 하다 일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왔는데 웃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선생님 왜 힘드냐고 제가 될 잘못했느냐고 벌써 눈치를 보는 거예요(사례 4).

• 생존을 위해 익숙한 거짓말

거짓말이라고 하는 부분은 참 저희도 아이들 대할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데도 거짓말을 한다. 방어기제로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데, 초반에는 선생님들과 많이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는 선생님들이 알기 때문에...

제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짓말 같은 부분들 왜냐하면 여기 살아서 넘어 오려면 거짓말을 안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거짓말이 안 좋은걸 알지만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상황을 유리하게 하기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상황...(사례 11)

- 친밀감 형성 이후의 무한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면, 자기들이 먼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하고... - 중략 - 신뢰가 형성이 되면, 그런데 그 이전에는 항상 방어기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뢰관계 형성되면 처음에는 경계심을 갖고 이 사람들을 꺼려하는데 먼저 접근하기 어려워하고 어느 정도 관계형성이 되면 먼저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되면 욕을 하던 혼을 내건 그렇게 해도 그런 것이 본인에게 크게 상처로 안 남는데, 관계형성 이전의 행동들이 나를 무시하고 새터민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사례 10).

② 자기노출의 어려움

- 신분노출에 대한 우려

아이들이 그 자기 홈페이지라든지 싸이 이런 곳에 사진 다 올리는데 방송사에서 오면 다 거부해요, 왜 거부하느냐 나의 사진이 외부로 유출됐을 시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하죠, 근데 본인들은 정작 본인 사이트에 다 사진 올려요, 그런데 그 카메라를 들고 인터뷰를 하려고 하면 열이면 열 백이면백 다 거부를 합니다(사례 10)

- 자기노출 경험 부재

학생들도 이야기 해요, 자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들어준 사람이 없었다, 그거죠, 결국..(사례 6).

- 북한출신 정체성 드러내기의 어려움

대인 관계 있어서 학업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북한에서 온 것에 대해 밝히는 걸 꺼려하고 싫어한다. 졸업한 아이 중에 얼마 전에 터미널에 데리러갔었는데 '이제 숨 쉬고 살겠네'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자기가 북한사람이라는 것이 알려 질까봐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살다가 비로소 학교에 들어와서 말을 실컷 하는... 일반학교에서는 유독 관계형성에 심할 수 있다. 학교에서도 일반학교에 가면 어차피 알거 당당하게 밝혀라하지만 밝히고 싶지 않는 상황, 밝혀졌을 때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끼치는 것이 있고...(사례 10).

- 자기노출에 대한 부담

오픈 잘 안 해요, 관계가 어느 정도 되고 자기들이 안전한 상대라고 믿음이 가면 묻지 않아도 스스로 이야기 하는데 막 드러내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사례 5).

③ 심리 정서적 딜레마

- 외로움

애네들이 가정, 가족에 대한 게 있잖아요, 외로운 게 있다 보니까 성적인 문란함도 친밀감에 대한 갈증일 수 있겠다(사례 6)

- 신체적 외소로 인한 열등감

여기서의 삶이 녹록하지 않으니 적응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죠, 여자애들보다 남자애들이 더 작고 그런데 여기 오면 다들 키작은 그것도 사실은 열등감을 느낄 수 있고..(사례 6)

- 정서억압

자기 안에 감정을 상담을 통해서 보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억압되고 살아서 그러고 싶지 않는(사례 9).

- 분노조절의 어려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음)

한 예를 들자면, 그냥 그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다투는 모습을 보고 북한에 아버지로 부터의 연관이 떠올라서 그 상황을 못 이기고 분노 표출을 했어

요, 그래서 이 평소에는 안 나타나다가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접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분노심이 일어나는 거죠, 평소에는 안정적이고 차분한 관계를 맺지만 잠재된 분노가 없는 게 아니에요(사례 10)

- 정체성 정립의 필요성: “남한사람이 되고 싶은 북한사람”

남한 사람이 되고 싶은 북한 사람이예요, 아이들을 보면, 자기가 북에서 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자기 고향은 북한이래요, 저는 그럼 너는 고향이 북한이 아니라 함경도야 이렇게 말해줘요, 같은 한반도니까 넌 그 지역에서 온 것 뿐이야, 라고 하는데 어디에서는 눈치보는 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강원도 사람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자기가 북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에는 변함이 없어요, 가치관의 혼란이라기 보다는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너 왜 우리나라에서 왜 돈 해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우리도 힘든데 이런 거(사례 4)

2) 북한이탈 청소년의 상담에 대한 태도

남한에서의 부정적 상담경험 – 상담자의 몰이해와 낙인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①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북한에서는 상담문화가 없고 상담에 대한 욕구도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상담을 받아도 상담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도 한다. 일부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상담을 잘못 한 것에 대한 취조 형태로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 상담에 대한 인식부족

제가 듣기로는 북한에는 심리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없데요, 심리학과, 상담도 없어서 애들이 상담실에 오는 것이 아직 ... 취조 같은 건 당해봤어도...(사례 11).

- 상담에 대한 거부감

애들마다 차이는 있는데 정신과적 심리적 상담이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거부감이 있어요, 북한에서는 정신과라면 미친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심해서 병원에 가야 해서 소개를 해주려고 해도 안 가려고 해요, 처음 만났던 애는 내가 데리고 가서 안심시켜줘야 하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사례 6).

- 상담의 유익성에 대한 의심

상담 선생님이 있다고 하니깐 아이들이 상담도 받아보기도 했었나봐요,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더라구요, 상담한다고 하면 공부하지 왜 그 시간에 그딴 얘기 하고 앉아 있냐고 뭐 도움이 있냐고 나에게 뭐 주기를 하냐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좀 강하게 얘기하는 게 상담이 정말 필요한데 상담이 좀 어렵구나(사례 4),

- 남한의 부정적 상담경험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심각한 아이들 경우는 학교에 상담 선생님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많이 받나 봐요, 근데 아이들에 대해 잘 모르신 경우도 있고, 상담을 받았던 저희 학생은 상담 소녀라고 그렇게 놀림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선생님은 이제 얼마나 선생님에게 상담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냈었어요, 믿지를 못하고..(사례 5),

② 상담이라는 무형의 도움이 낯설음

- 현실적인 문제로 도움요청

현실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런 문제에 아이들이 수없이 노출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담을 하고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버티게는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시기를 그거는 크죠, 당장 현실적이고 그런 문제는, 아이들이 상담을 받으려고 하고 요청을 하면 심리적인 것 보다는 답답하거나 현실적인 게 도움이 필요해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기들 혼자서 마음으로 힘든 거는 굳이 말을 해서 이리지는 않고...(사례 5),

- 비자발적 상담신청

네, 아이들이 올 확률은 작아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기관을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횟수도 드물 거예요, 현재 저희 센터나 다른 센터에서 보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다, 그걸 해결해주세요," 하고 찾아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사례 2),

3) 주 호소문제

① 정신건강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탈북 하는 과정에서 끔찍한 과정을 겪었으니까 그 기억이 난다거나..- 증략 - 예를 들면 어떤 애는 쿵 소리가 나면 맨 처음에는 너무나 놀랐던 거예요, 조그만 움직임에도 위협을 느끼고 민감해지는 것이지요, 그게 심하고..(사례 6).

- 실존적 불안

내가 어디 와있는지 모르겠다는 실존적인 불안을 느끼는 청소년이 많을 것 같아요(사례 9).

- 신체화

또 하나의 증상은 신체화이죠, 분명 몸이 안 좋긴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이 아이가 죽을만큼의 고통은 아닌데, 그런데도 아이들은 좀 아파서 수업 빠지고 집에 가고... 나중에 보니까 신체화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피부적으로 체질화되어있는 것 같아요(사례 10).

② 학업의 어려움

- 기초학습 경험 부족

학업이라는 부분이 이 아이들은 북한에서 공교육이 외각 지역은 붕괴되어서 학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북한의 고등중학교 6학년 우리나라로는 고등학교 아이가 있었는데 학업수준이 매우 낮았어요, 너는 고등학교졸업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선생님 저는 그냥 학교 적 두고 내년이면 한 학년 올라가져있고 연속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연명 하는 거였어요(사례 10).

- 남북한 학업수준 차이로 인한 학업스트레스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배워서 들어 간 게 별로 없는 아이들이고 밥 먹고 일하고 이러다 온 애들이라 영어 단어를 어떻게 외워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도 몰라(사례 6)

- 학교적응의 어려움

당장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는 것이 위기문제 이므로 학교에 붙여줘도,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위기문제가 또 발생하니까 도움을 주고 해야 하고,,(사례 3),

또 한 명은 호기심에 약간, 학교라는 시스템이 처음인 학생이 적응하느라 힘든 거 이런 걸로 호소를 했던 것 같아요(사례 8),

③ 대인관계 문제

- 남한 친구교제의 어려움

친구관계에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보는 것이죠, 내가 진짜 감정을 숨기고 많이 못 나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보기는 똑같아 보이잖아요, 보기는 그렇지만 탈북자라는 걸 알면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진짜를 알면 달라지니 걸으로는 비슷하고,,(사례 8),

- 이성교제 집착

흐지부지된 상담이 힘들었는데 처음은 학생이 동기나 니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시기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다음 남자친구 전 시기에 시작되었다가 다음 남자친구를 만나는, 이 학생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관계적인, 거기에만 몰두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걸로 인해 학교와의 마찰, 그래서 한계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사례 8),

- 언어차이

한국말을 잘 못해서 대인관계에서 힘든 거예요, 한국말 못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케이스가 다양한 거예요,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정서적인 것 보다 한국말이 힘들어서, 친구들이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고 자꾸만 사건이 들어가서... (사례 11),

- 왕따

여기 오면 낮서니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어느 정도...요즘 애들은 학교 가면 조금만 모자라도 왕따 시키고 놀리잖아요, 놀린 거죠, 애들이 의자에 흙 뿌렸어요, 지우개 던졌어요, 와서 그런 얘기만 해요(사례 5),

④ 진로문제

- 현실적인 기대조정의 어려움

아이들한테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직업에 관한 거예요, 본인인 군인을 하고 싶다고 군인을 할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군인을 할 수 없거든요, 탈북 청소년들은 뭐든지 제약인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탈북 청소년이 있어요, 말씀드리면 누군지 알 만한 아이인데 애가 스튜어디스를 너무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안 되요, 본인은 그것 때문에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지만 능력이 영어가 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얼굴도 되게 예쁘게 생기고 뭐 방송에서도 유명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테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니까 애네 들은 본인들이 정말 잘 살고 싶어 왔는데 또 다른 거부감이 느껴지니까 거기에서 오는 게 큰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직업, 자기의 진로..(사례 4)

뭔가 나는 아는데 그거를 좀 더 잘 해서 가고 싶고 더 높은 정도를 가고 싶고, 혜택을 보지만 남한 아이들과 똑같이 수능을 보고 싶고, 그런 걸 조절하는데 조금씩 핏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사례 8),

- 직업결정 방식의 남북한 차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대학에 가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군대나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없죠, 졸업한 아이는 꿈이 법관 이었는데, 좀 어렵다 하니까, 북한에서 가능했데요, 아버지가 법관이어서.. 세습적인 부분도 출신성분상 반영이 되고, 공부를 잘해도 사회진출이 어렵다는 거죠(사례 10),

- 진로 미결정

여기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 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어 하고..(사례 9)

진로 쪽에 저희가 정말 고3인데 취업을 해야 할 상황, 결정을 해야 할 때,, 대학을 가고 싶다하지만 특례로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대학을 나와서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목표가 없어요, 진로에 대해 방향성을 잡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사례 10).

⑤ 가족문제

• 가정해체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가정이 다 깨져있어요, 편부 편모 부부싸움이 심해서 엄마는 맞고 살고 문 닫아 놓고 때린 기억 또 너무 없이 살다보니까 생존해야 하는 것들, 가정이 완전히 깨져있고 어려서부터의 돌봄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고 그 와중에 살라고 나왔잖아요, 나와서 놓고 온 가족이 있으니까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사례 6).

• 가정폭력

호소문제 중에 심각한 게 가족 문제, 예를 들면 아버지가 폭력을 쓴다던지 이상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한 경우도 있었고, 맨날 맞고 온 애도 있었고, 부모님이 때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사례 5).

• 재결합 가정의 문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건데, 가족관계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학업이라든지 대인관계 여기서 친구관계 이런 것도 있는 그거에 앞서 가족관계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가족이 북한에 있거나 남한에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전체적인 흐름을 바꿔 놓을 수 있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 학교생활오래해서 관계형성이 잘되었는데, 자기는 앞으로 방송 관련 일을 계속 해왔고 방송관련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어제 엄마와 통화를 했는데, 몸이 매우 안 좋고 새아버지가 어머니를 남한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엄마를 어떻게든 치료해주고 싶은 욕망이 커서 대학보다 취업을 해서 엄마를 치료 해주고 싶고 데려오고 싶다는 게 취지였어요, 이것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가족관계에 따라서 수정

되어야하는 부분이 있고, 남한에 비해서 재혼을 했을 때(편부, 편모가 70%이상) 재혼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들이 아이들을 좌우한다는 거죠(사례 10).

- 부모의 북한식 양육태도

부모님들의 양육방식이 되게 독재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게 전부 는 아니겠지만, 주말에 집에 안가냐 물어보면... '기숙사가 더 편해요' 라고 해요, 가면은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하라고만 하시고 너가 공부해야한다며, 부모님이 공부이야기만해서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이야기꺼리가 없어서 부모님은 성취 관련 되서 이야기만하시고..(사례 11).

⑥ 환경적 문제

- 경제적 어려움

현실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런 문제에 아이들이 수없이 노출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담을 하고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사례 5).

생존의 문제가 급해서 다른 문제들은 흘려버려서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상담을 하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사례 9).

- 지지체계의 부족

다른 상담보다, 다른 신뢰로운 경험을 경험하기 힘들었고, 지지하는 사람이 없고, 남한아이들은 주변 환경에서 지지를 자원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은 어려우니까...(사례 11).

4)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의 특성

① 구조화된 상담진행의 어려움

- 신뢰감 형성의 어려움

그리고 자존감이 낮다보니까 사람을 못 믿죠, 사실은 남한에 와서 무슨 좋은 경험을 했겠어요, 그래서 신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에 와서도 신뢰 형

성이 어려운 것 같고, 북이라는 사회가 폐쇄적인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여러 가지가 문화적 차이가 크죠(사례 7),

- 시간개념 부족

그렇죠, 자기를 꾸미려고 말을 많이 하고 분명히 아는데도 안 했다고 하고, 약속시간 안 지키거든요, 약속 시간 안 지키는 거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정하고, 약속 시간 30분 늦었을 때 핑계를 대는데 거짓 말을 들통 나는데도 많이 해요(사례 4),

개인차가 있는 건데 시간 개념이 굉장히 없구요, 시간 지켜서 뭐 해야 할 필요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왔으니까(사례 6),

- 상경제적 문제 우선으로 인한 상담지속의 어려움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저희도 기획을 하면 아이들이 처음엔 관심이 있어서 다 신청을 해요, 그런데 진행을 하면 1회기, 2회기, 3회기 누군 이래서 안 오고, 저래서 안 오고, 7명 시작해서도 2명 이렇게 올 때도 있고 진 빠지거든요.(사례 5),

저도 11회기 방학에 연결하려고 했는데 알바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돈 버는 게 중요하니까..(사례 9)

- 단기상담으로 인한 상담종결의 어려움

저도 종결을 한 학생은 한 명이고 외부적인 사건에 의해 흐지부지 되고, 한 학생은 자기가 가지고 온 문제,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다, 헤어짐에 대한 거절에 대한 게 커요, 엄마랑 같이 왔는데 하나원에서 따로 살아요, 하나원에서 조그만 살 데를 주잖아요, 그건 엄마가 갖고 애는 따로 얹혀사는, 헤어짐에 대한 걸 한번 더 다루고, 종결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에요(사례 9),

②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의 과제

- 자기노출에 대한 저항

결국에 그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런 얘기를 하면 남학생들 경우엔 자기가 약해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저항이..(사례 6)

이 집단을 하는데 여러 명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뭐든지 솔직히 이야기 하자, 그러면 너무 고생을 하는 사람은 생각을 하는 게 힘들니까 화를 내기도 하고,,(사례 7).

- 문제의 복합성. (가족, 경제, 진로, 사회, 학업)

어떤 하나의 문제가 그래프 상으로 보면 다 비슷비슷하므로 어떤 것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면 또 따라 붙는 문제들이 있어서 어떤 하나만 해결해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아이가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워보여서 접근하려고 보면, 남한 사회에 적응 자체가 어려워서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보조를 맞추면서 상담을 진행하려고 하면 또 다른 경제적인 문제가 따라 붙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이들이 상담에 대해서 마음이 동하지 않아 상담이 진행이 잘 안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려워하세요, 또 하나 따라 붙는 문제는 학습적인 문제인데, '나는 남한에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학습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서 문제에 대한 우위를 따져서 상담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사례 2).

-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북한이탈 청소년

감정기복이 심한 청소년, 그 청소년은 남학생인데 계속 울어요, 40분을 먹는 얘기를 해요, 20세가 넘은 청년이 생존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데요, 그래서 나도 힘들었어요(사례 9).

중기, 초기는 설레임이나 하고 싶은 얘기를 가지고 와요, 1, 2, 3회가 지나면 해소가 되거든요, 5회 정도 되면 할 얘기가 없어진다거나 그러면 그거를 못 견디는 것 같아요(사례 8)

-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지원 체계의 미흡

CYS-Net이 광역단위 만큼이라도 연계를 해봐라 해서 연계를 해요, 예를 들어 **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한다 하면 성인 대상으로 하고 청소년들 지원이 안 되니까 다시 거기서 우리 기관으로 연락이 오고 하니까 문제가 회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역 기관에 설불리 의뢰하는 것이 저희가 보증수표가 아닌 부도수표가 되기도 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의 과제예요, 제가 경험을 오래 해보니까 이건 어떤 뜻으로 되거나 돈으로 되거나 하

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준비가 되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탈북아이들이 많이 가는 지역에 최소한 거점별로는 분포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사례 1),

막 심각한데 어디에다 이거를 도움을 받아야 할지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에 상담센터는 많지만 누구를 믿고 의뢰를 해야 할지 지역에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게 있는데 의뢰를 해도 감감 무소식이고, 검사를 받고 와도 연락도 없고 하고 그게 힘들어요(사례 5),

5)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을 위한 상담자 교육

① 청소년상담자 역량강화의 필요성

- 사전 상담자 교육의 부족

상담은 없고 아이들 서로 하는 프로그램을 접해본 적은 있는데 상담은 없어요(사례 4),

- 위기관리의 어려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여전히 풀지 못하는 숙제인데 원치 않게 임신을 하게 된 경우 근데 그게 남한에서 그냥 아이들이 임신한 거랑 다르니까 최근에 친구 중에 한명도 두만강 잘 건너게 해줄게 했던 게 경비대가 임신을 했는데 만나봤는데 세상의 불신이 되는 거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을 넘어가는 돕겠다고 한사람이 그렇게 한 거니까 그 친구는 다행히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다른 친구들은 중국에서 출산을 하고 온다거나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 하는 게 덮였으면 하는 건데 덮이지는 않고 불편한감정은 남아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손을 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연락 두절이 되면 우리 남는 거 있잖아요(사례 3),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집에서 부모에게 학대받고 말할 때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죠, 신고를 해 말어 부터 시작해서 다른 기관에 손도 많이 내밀어 봤는데,,그게 굉장히 막막해요(사례 5),

- 감정 다루기의 힘들

한 십년 간 만났어도 예를 들어서 가족 들 중에 남자아이인데 자기랑 아빠랑

남동생만 왔고 엄마랑 누나는 못 왔어요, 그냥 엄마는 거기에 있고 누나는 오다가 걸린 거예요,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대충은 아시잖아요, 근데 누나는 거기에서 죽었는데요, 포로수용소에서, 근데 이거를 담담하게 말하는 거예요, 누나가 잡혀갔어요, 이거를 너무 담담하게 얘기했길래 저도 어느 순간 착각했어요,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자기 가족이 죽게 생겼는데 그런 식으로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화 시켜서 이야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감정 끌어내기가 힘들고...(사례 4).

- 환경적 문제에 대한 개입의 어려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워낙 복잡적이니까 우선순위를 잡아서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다 또 연관되어 있어서요(사례 3).

② 상담자가 알아야할 선행지식

북한에서 살았던 배경들, 예를 들어 가난해서 가족들이 해체되었고 그런 경험들, 탈북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 경우의 수가 있을 거란 거,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아이들은 자기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고3이고 여기서도 많이 힘들고 그런데도 북한에서 일단 애가 남한에 있으니까 가끔 전화를 해요, 누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애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막 벌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거, 여기 와서 애네들이 느끼는 것들,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북에서 왔다는 걸, 여기 아이들과 똑같이 자기도 지내고 싶어 하고, 비밀로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아이들이 그런 배경을 알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금방 캐치할 수 있거든요(사례 5), 그 아이의 배경을 잘 알고 있으면, 그게 제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애가 무슨 얘기해도 정말 그랬어?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그 아이의 스토리를 들으면,(사례 5)

- 문제에 대한 문화적 차이

문화적인 차이가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도 생생한 게 맨 처음에 여기에 데려온 학생이 계속 자살충동이 있고 애가 옥상에 내려가서 선생님이 데리고 온 건데 섭식장애도 있고, 정신과에 데려가서 약을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애가 섭식장애가 아니라 너무 못 먹었다가 먹을 걸 보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정도

로 저희가 이해를 못했었던 거였죠, 굶어서 죽는 거를 얘기로만 들었고 그래서 이해하기가...그리고 애네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잠 잘 못 자고 그런 식의..(사례 6)

그런 게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아이들에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 불안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드라마틱한 생활을 하다가 무미건조한 남한에서 과도한 도전을 하거나 스스로를 과하게 밤새서 뭘 한다거나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사례 8),

- 북한사회 및 북한이탈과정에 대한 이해

저는 일단은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탈북 하기위해서 겪는 루트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걸 모르면 아이들 상담하면서 국정원, 하나원, 학교 등등에서 대답했던 것들을 다시 이야기해야하니까 상담사가 미리알고 그 외에 것들을 물어야 하는데... 공통적으로 겪는 것들 난민지위를 획득하기위해서 태국대사관에서 약간 수용되는 시간이 있고, 건너오는 루트들이 있고, 돈이 많은 경우 빠르게 오고...(사례 11),

상담 선생님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자기 얘기를 여기 와서 쏟아놓고 가거든요, 자기네들 사정이나 이런 걸 잘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면 잘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에게 말하면 거짓말이라 하거나 믿지 않거나 놀라거나 하니까 그런 얘기는 하니까 애들이 그런 얘긴 어디 가서 잘 하지를 못해요,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이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구나...(사례 5)

- 북한이탈 청소년의 배경과 특성 이해

일반적으로 탈북청소년들을 안 만나본 사람들은 탈북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묻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은 그 아이와 관계를 90%이상 깨뜨리게 되죠, 최소한 이런 부분을 조심하는 건 필요하죠(사례 1),

- 북한의 학제이해

대부분 청소년들은 3국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중국의 학제를 더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교육이라든가 학교 공부를 못했을 경우가 커요, 제가 아는 여기에 오

는 아이들 대부분은 그렇거든요, 기본은 알고 계셔야 하지만, 자세히 아는 것은... 알기도 어렵고, 학제가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정도...(사례 4),

- 북한이탈 청소년 정책 및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

북한이탈주민이나 청소년들이 이해받는다고 느꼈던 거는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 것 같다. 정책, 제도, 지원의 구체적 흐름도 알고 있어야지 이해 교육 안에서 직접 만났을 때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줄 수 있지 않을까(사례 3),

-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개인차 이해

탈북자체가 옛날과 달라져서 탈북과정의 예전에는 길지만 아이들 비입국자들이 일주일 만에 비행기타고 오는 경우도 많아요, 두만강에서 조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무섭지만 예전처럼 너무 그런 아이들은 있지만 소수예요, 탈북과정의 달라져서 아이들의 성향이 변한다는 거죠(사례 2),

③ 상담자 태도와 역할

- 상담자 선입견 배제

일단은 탈북자이기 때문에 어떨 거다 라는 선입견들은 접어 두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거든요, 남한의 청소년들과 같아요(사례 10),

- 상담자의 진솔성

라포 형성을 할 때 진심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힘들 때 힘들다고 이야기 하는 게 나아요, 솔직하게 뭐든지, 그거에서 가장 많이 할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사례 4),

보통 상담하듯이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힘들면 그런 적이 있어요, 하도 약속을 안 지켜서 기가 막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무 화가 났고 이러니까 솔직하게 그리고 담부터 그러면 선생님이 올 때 기운이 빠진 다 라고 하니 달라졌거든요(사례 6),

- 소진예방을 위한 상담자 자기관리

탈북아이들을 상담을 하다가 너무 지치고 자기 탓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원래 어려운 문제였다, 그럴 수도 있었다 생각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매뉴얼이 상담자를 위한 장치도 필요한 것 같아요(사례 1),

- 연계인으로서의 역할

지역이 어떤 기관이 있으면 저희들은 그 기관에 아이를 부탁하거나 혹은 아이에게 그 기관에 연락을 취하라고 하거나 하는 보증수표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데 만약 그런 거 없이 "네가 연락해봐라" 하면 연락하지 않죠, 그러니까 중간에 매개자 역할을 여전히 필요한 거죠, 아이가 스스로 어딘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면 그 아이는 정말 훌륭한 아이죠(사례 1),

- 안정적인 지지자 역할

제일 중요한 거는 편안하게 모든 걸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공감을 해주고 이해를 해준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신뢰잖아요, 안전하다 느낌이 들어야 하는 거니까 금방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시간에 힘든 이야기를 하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안전함을 느끼고 열었던 맘이 녹아지면 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고...(사례 7),

제가 안정적인 버팀목으로 있는 거, 긴 세월동안 떠돌아다니면서 누구에게도 안정감을 받지 못한 청년들,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수용될 수 있고 자기편에서 같이 들여 볼 수 있는 역할을 상담자가 해야 된다고,- 중략 - 안정적인 지지자로 지나간 삶에 대한 가치를 성찰을 했어요, 연속선 상에 있는 자기라는 걸,, 그 가운데 엄마한테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을 조금 덜어낼 수 있는 거죠(사례 9)

- 따뜻하고 한결같은 상담자 역할

아이들이 간을 봐요, 눈치를 보는데 그냥 애들 입장에서는 명령하고 이런 입장 싫어해요, 부모님이 대부분 그러시니까,,,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는 거 좋아하는데, 상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겠죠,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바뀌어 버리면 제가 어제부터 몸이 안 좋아서 애들 왔을 때 조금 날카롭게 대했더니 선생님 변했다고 막 해가지고 제가 무마하려고 또 아시다시피 그럴만한 그걸 쪽 받아줄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가고요, - 중략 - 어린 아이들 경우에는 부모에

게 사랑을 받은 경험이 적잖아요, 부모들이 명령하고 그래서 부모의 대신 역할을 제가 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와서 확인을 해봐도 '선생님 제가 아까 전에 그렇게 했는데 제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 것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담자들도 다양한 분들이 필요한데, 주로 포근한 분들이 아이들이 조금 하는 거 포용력이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게(사례 11).

6) 적합한 상담 방식

① 상담형식

• 개인상담 선호

그런데 본인들끼리 모이는 걸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니 너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왜 숨기냐고 기본적으로 남한 사회에서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도 모이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 청소년들과 한 번 프로그램 같은 걸 한 적이 있었어요, 교육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호응도는 그렇게 없어요, 서로가 서로 눈치 보는 게 있어요, 집단도 잘 하면 집단도 괜찮기는 하지만 어려울 것 같고 개인적 상담으로 하는 게 어떨까(사례 4).

• 매체활용(영화를 활용하거나 연극치료 등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임)

좋아해요, 흥이 우리들보다 많더라고요, 자기가 무엇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좋아해요, 아이들은 이렇게 그리는거야 라는 것을 거의 못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표현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글쓰는 건 잘 못해요, 아이들이 처음 와서 제일 어려웠던 게 국어랑 영어래요, 국어는 본인이 쓰던 언어가 아니니까 국어를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책 읽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사례 4).

• 현장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저는 남한 사람들과의 접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로부분에서는 그 펠드에 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떤 경험이 있는지, 소통을 이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남한 사람들과,,(사례 8).

- 장기상담의 필요성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회기를 길게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로 이런 거만 다루면 10회기로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실질적으로 감정을 다루면 조금 더 길게 잡아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사례 4),

25세 학생인데 감정적인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구요, 병이 깊은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과 다르게 겪은 과정 삶이 기본적인 가정하고 상당히 달라요(사례 9),

② 상담방법

- 적응을 위한 심리교육

저는 하면서 느끼는 게 제일 필요한 게 코칭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면 현실적인 도움이 굉장히 필요해요, 심리적인 것을 다루지만 그야말로 진로 상담, 대인관계도 그렇고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말 이런 말 할 때 저 사람은 어떻게 느끼고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사례 6),

- 존중과 지지적 접근.

제가 그걸 다르게 잡고 다른 기대를 가지고 대하는 것 같고 그 학생들은 사실 잘 들여다보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저항감을 느꼈던 것 보다 그거 자체를 다뤄요, 북한에서의 경험이 힘들다 그런 거에서 좋은 걸 느끼고 그럼 격려해주고, 억지로 끄집어 내려 고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상태로 가는 정도로 그 조정을 다르게 하는 것 같긴 해요(사례 8),

- 상담자와의 신뢰로운 대인관계 경험 우선

그냥 처음에 만났던 학생이 기억에 많이 나죠, 되게 경직되어 있었고 처음 그 학교에서 시작하다가 여기 와서 했던 애라 그 두려움이 있었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한참 만에 풀려고 1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아이는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왔죠, 대학교 가서 더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게 부뚝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관계를 맺었구나, 애네들이 보면 엄

마 따로 애 따로예요, 너무 떨어져 있다가 만나고 북한에서도 엄마가 먼저 탈북해서 몇 년 떨어져 있고, 엄마랑 서먹하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애착관계 형성해서 뭐를 해나갈 기회조차 없는 건데 상담자가 그걸 해줄 수 있으면 좋은 관계 맺는 거를 해줄 수 있으면..(사례 6),

- 현실기반의 문제해결 중심

예를 들어 심리적인 접근할 때 우울감이 너무 많은데 그 원인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라고 하면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상담이 분명히 필요가 있지만 현재 아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함께 가야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이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사례 3),

왜냐면 아무래도 적응부분이 큰 아이들이잖아요, 현실에 대처해서 자기를 깊이 들여다봐서 장기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목표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차 있는 거 해소하고 지탱을 해주고 그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사례 8),

- 복지지원 병행

상담을 할 때 어려운 점이 그냥 심리상담이나 정서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다른 복지적인 제반도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상담을 통해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문제를 해결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사례 2),

③ 상담기법

- 상담자 자기개방

개인의 신상을 접근하는 방법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안전한 방식을 내가 궁금한 걸 내가 먼저 이야기하고 물어보는 형식인데 주로는 대개 호구조사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이야기를 먼저하고 질문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좀 더 편해한다는 거죠(사례 3)

보통 상담하듯이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수 밖에 없는 거죠 내가 힘들면 그런 적이 있어요, 하도 약속을 안 지켜서 기가 막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무 화가 났고 이러니까 솔직하게 그리고 담부터 그러면 선생님이 울 때 기운이 빠진 다 라고 하니 달라졌거든요(사례 6)

- 솔직하고 직접적인 표현

못 알아들었는 건 솔직히 이야기하고, 직설화법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돌려서 교양 있게 하는 것보다 확확.. 못 알아들으면 물어본다거나 조금 조심스러운 말투도 제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너무 우선은 내가 너를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직선적으로 이야기 한 경우가 있다. 그거를 조심스레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쟁탈 하면 거기서 이질감을 느낄 수 있다고(사례 8)

- 버터주기

이렇게 극한 경험도 하고 생존 이런 경험을 해서 아이들이 간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나를 받아 줄 것인가, 갖고 놀아요. 진짜, 애들 속이 다 보이니까 가끔 마음이 좀 이용당한 것 같은 때도 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터줘야죠. 그런 걸 잘 지나야 아이들이 마음을 여는 것 같아요(사례 5)

-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이해 표현

아이들이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정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거나 유도할 수 있죠. 그럼 아이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잘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저 같은 경우(사례 5)

하나원에서 일했거든요. 거기서 만났던 아이들 그때의 이야기, 북한에서 아이들한테 살았던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공감대 형성이 돼서 아이들이 마음을 잘 열거든요(사례 5)

- 마음 열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

스스럼없이 나오게 하거나 좀 나이가 어리거나 그러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억지로 꺼내기보다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아 그런 마음이구나, 그래그래 공부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있어요(사례 4)

- 규칙을 강요하지 않음

그래도 보통 하는 것처럼 상담은 이런 거고 똑같이 하되 막 어떤 규칙 강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시간약속을 가장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사례 5)

- 신체접촉을 통한 라포 형성

진짜 뭐 얘기하더라도 선생님이 뭐 압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맨날 무시하고 결국에는 목조르기하고 발 걸기 하고 맨날 몸싸움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속마음 털어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부딪히고 시간도 많이 흘렸고 그 친구랑 가장 오래됐고 그랬던 것 같아요(사례 4).

아이들 잘 때 막 들어가서 몸 부빌 정도로 친하고 그래서...(사례 10).

부록2. 북한이탈 청소년 면접 상세 내용

1. 남한 적응 시 어려웠던 점

1) 경제적 어려움

- 사례 9) 제가 정말 오느라고 비용이 많이 들었잖아요, 엄마가 빚을 갚고 있으니까 나도 일해서 차라리 그럴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엄마 나 도우면서 살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 사례 11) 가족들은 자주 못 보고 엄마가 지금 돈 벌러 외국 가서 좀 돈 벌려고 외국가서 돈 벌고 있어요..
- 사례 6) 금전적으로 문제가 되요, 근데 애들이 다 나이키 신고, 노스페이스 패딩 입으니까 나도 입고 싶은 생각 들고..
- 사례 2) 명절 때나 외로움 많이 타고 청소년이거나 나이가 어린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관리해줄 사람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힘든 것 같아요,

2) 언어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 사례 4)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언어, 저도 외래어 때문에 열받아서 선생님 찾아가서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 사례 5) 처음에는 언어 차이, 외래어를 많이 쓰다보니까 모르는 게 진짜 많았어요, 거의 모든 게 영어로 된 발음으로 쓰잖아요, 볼펜, 테이블, 컵, 적응 하는 데 1년 걸렸을 거예요.
- 사례 7) 언어차이, 애들 지금 쓰는 말하고 저희가 쓰는 말에 차이가 있으니까 계속 물어봐야 하고, 애는 알고 저희는 모르니까 애는 이것도 모르나 이런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요..
- 사례 8) 언어차이가 외래어 같은 거 아직 제가 8개월 정도 되었는데 **학교에 있으니까 사회 물정도 모르고 외래어 같은 거도 잘 몰라요..

3) 대인관계 어려움

- 사례 1) 친구관계? 학생이다 보니까 애들하고 어떻게 어울려야 할지 몰라서, (남한친구들하고?) 네, 북한친구들은 만나면 친구가 되요, 근네 남한 애들하고는 재네랑 어떻게 친해야 하나 숙제예요, 지금도 대학에서도 숙제예요,,
대하는 방식이 다른데, 제가 남한 친구들을 대할 때는 조심해야 하는데 긴장을 하고 있어요,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된다 하다가 북한 친구들 만나면 그냥 막 노는거지요,
- 사례 2) 애들이랑 친구 관계나 이렇게 좀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4) 학업문제

- 사례 4) 여기 처음 왔을 때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북한에서 배우고 온 거라고는 굽하기 나누기 딱 배우고 왔어요, 학교도 1년 합쳐봤자 한 달 다녔나,,
영어는 진짜 a, b, c, d까지 듣고 왔어요, 영어는 여러 개 있다, 제일 쪽팔릴 때가 언제였었냐면, 일반 학교 갔을 때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그날 출석부 상으로 저라 저를 지목했는데 읽으라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는 알파벳이 절반도 안 되요, 많이 쪽팔렸죠,,
- 사례 11) 학교생활 할 때에는 별 어려운 건 없었는데 가면서 과목이나 어려운 게 있어서,,
- 사례 7) 여기서 공부나 교우관계 이런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5) 문화적 이질감

- 사례 1) 주변의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다르다, 조심해야한다고 하니까 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고, 경제관념도 확고하고 싸가지 없으면 안 되고, 뭔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가가지고 막돈이 있으면 내면 되고 또 낼 수 있고, 여기 애들은 밥을 사면 다음엔 내가 사야 하고 훨씬 더 규정되어 있더라구요,
- 사례 4) 문화적인 것, 여기 사람들은 상식으로 아는 걸 저희는 모르죠, 대화를 나눌 때 말이 잘 안 통하고,, 교통 쪽으로도 어려워요, 북한은 도로가 딱 하나인데, 밖에 다니기 무섭고,,

사례 9) 남한 학생들은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왔어 하면 왜 비행기 타고 오면 되잖아 이렇게 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왔어 이야기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6) 북한 사람에 대한 거부감

사례 4) 천안함 사건 때문에 왕따 당하고 해서 여기 학교로 온 애들도 많아요, 직접적인 공격은 없겠지만 가만히 은근히 하는 공격에 더 상처를 받고 그래요,

사례 5) 내면적인 영향은 한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들, 옛날부터 쌓여 온 감정들, 북한 사람은 어떻고, 우리하고 이런 관계다, 물론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건데 깊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정부나 정권이 문제인데 그 영향이 우리에게 오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우호적이긴 하는데 극히 드물게 그런 우리 보는 자체가 그런 감정들로부터 나온 생각이니까 곤란할 때가 많아요,

7) 정서적 어려움 (외로움/불안/청소년기 방향)

사례 8) 그때 보면 엄마들이 아이고 내 새끼, 진짜 어린이 취급처럼 해요, 보면 부럽다, 나도 그런 때 있었는데.. (외로움)

사례 2) 그런데서 저처럼 혼자 오는 청소년도 많은데 자기를 보호할 사람이 없으니까 많이 불안하고,.. (불안)

사례 3)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굳이 꼽자면 사춘기 때 중2 때.. (뭐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모든 게 다 거슬렸어요, 요만한 태클도 되게 크게 들리고,.. (사춘기 방향)

2. 지원받은 내용

1) 경제적 지원(국가로부터)

사례 5) 제일 많이 도움받은 건 정부, 정부에서 기초수급자 해서 도움을 많이 주죠

사례 10) 국가에서 생계국려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거의 경제적인 거가, 들어와서 어머니하고 떨어졌었거든요, 하나 원 수료해서, 제가 7만원 가지고 나왔었어요.

2) 지원 없음

사례 4) 개인은 도움받은 건 없어요..

사례 9) 남한에 와서 도움 받았던 분은 없어요...

사례 11) 제가 저는 잘 기억이 없어요, 저는 어머니가 해주시니까 학교다니고...

3. 힘들 때 도움 받은 대상 (도움 요청 대상)

1) 가까운 지인

① 교사

사례 4) 교육적으로는 선생님들한테 도움 많이 받았죠, 여기 처음 왔을 때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북한에서 배우고 온 거라고는 곱하기 나누기 딱 배우고 왔어요..

사례 5)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오래 있었으니까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생일잔치도 가끔 해주고, 이전의 학교에서는 짧은 기간이나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많이 챙겨줬어요, 제가 북한 사람이니까 아플 때도 특히 신경써줘서 진료실이나 데려가 주셨고..

사례 7) 엄마 없는 아이들, 혼자 지내는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랑 비슷해요, 눈에 보이는 도움은 아니지만 같이 살았다는 게 힘이 되잖아요, 정신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사례 11) 6학년때 거의 다 친했잖아요, 5년 동안이나 같이 지냈는데 제가 불쑥 6학년에 들어온 거라 친구도 없었잖아요, 근데 좀 힘들긴 했었는데 그때 많이 도와주셨죠, 학업문제도 그렇고 많이 조언을 해주셨어요.

② 부모

- 사례 3) 가족밖에 없으니까 가족한테 얘기하고, 여기 와서도 남이라고 해도 가족만 못해요, 가족이 제일 얘기를 하고,
- 사례 7) 고민 같은 건 특히 부모님한테 알려요..
- 사례 6) 속사정 마음이 안 좋거나 하면 엄마한테 말하거나,

③ 친구

- 사례 5) 저는 친구들이나 선생님.
- 사례 12) 고민이 생길 때는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서 씩을 때도 있고요, 저의 친한 친구한테 얘기할 때도 있어요.

2) 도움 요청 대상 없음: 혼자해결

- 사례 4) 저는 고민거리 생기면 누구한테 털어놓는 걸 못해요, 좋게 말하면 자기 치유력이 높다고 할까.. 자체적으로 치유했어요..
- 사례 6) 혼자서 삭히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 사례 7) 고민 있으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 사례 9) 없어요, 저 혼자 생각하고, 누구한테 얘기해도 도움이 어떻게 되겠어요...

4. 상담희망 영역

1) 진로

사례 7) 저는 진로, 고 3이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생활해야 하잖아요..

사례 9) 진로를 많이 고민해요

사례 10) 제가 이전에 한국 금방 왔을 때는 직업? 어떤 직업이 나에게 맞을지..

2) 대인관계 (또래관계)

사례 4) 대인관계에 대해서 바로 넘어 온 학생들이 친구관계가 어색하니까 그런 쪽으로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사례 10) 대인관계 공부를 안 하거나 잘하거나 모두 다 중시 여기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대부분 애들이 친구 옆에 없다고, 주말이면 교회 나갔다고고..

사례 11) 저를 볼때는 대인관계 이런거? (또래관계?) 네.. 살아가다보면 대인관계 중요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거..

3) 남한문화 이해 (또래문화이해)

사례 5) 바로 한국에 오는 학생들에게는 한국 문화에 대해 기초적인 문화는 이렇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다..

사례 9) 저는 한국사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그게 중요해요. 우선 알고 싶고, 한국사회가 어떤 걸 요구하는지..

사례 12) 남한 학생들을, 우리도 학생이니까, 좀 알고 싶어요. 생활이나 어떻게 노는지 그래야 저도 같이 그렇게 놀잖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촌스럽잖아요. 그것도 신경쓰는 거예요. 있다보니까..

4) 자기이해

- 사례 1) 자아분석? 북한에서는 먹고 살면 되요, 여기오니까 훨씬 생각도 많이 해야 하고, 어떤 때 내가 누구에게 돈에게 먹힌다거나 하는 위협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확실한 뭔가가 필요하단 생각을 해요, 판단 같은 걸 잘 할 수 있는..
- 사례 9) 우선 나에 대해 알고 싶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체험하고 싶어요..
- 사례 12) 남내가 막, 막 화가 나고 짜증나면 아무거나 까고 싶고 마음 조정도 어떻게 안 되요..

5. 상담에 대한 인식

1) 남한에서의 상담경험

① 긍정적 측면: 공감과 위로받음에서 정서적지지/해결책 찾음

- 사례 9) 상담 선생님은 보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의 편쪽을 들어서 얘기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다른 사람을 욕하면 제 편을 들고 생각해줄 때 좋았던 것 같아요, 내맘 알아주시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 사례 12) 제가 힘든 얘기를 하면 되게 슬퍼해요, 그때는 좀 위로도 좀 해주고 그런거죠, 앞으로는 괜찮아질 거라고..
- 사례 8) 친구랑 트러블이 생겨서 상담받는 날에 그 이야기를 하니깐 해결책을 내놓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② 부정적 측면: 낯설음/해결책 부재

- 사례 12) 뭐 사람들이 다 상담하면 마음이 좀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좋아진 거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3일인가 4일정도까지는 좋은 거예요, 그 담부터 할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가지고.. 그냥 일상생활을 얘기해야 하니깐 그게 좀 그렇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 사례 6) 너무 그냥 들어만 주고 해결책이 없어요, 혼자 말하다 보면 듣고 있으면 내가 말하는 건 도움을 받으려고 이야기 하는 건데, 해결책을 정확히 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 사례 9) 상담 선생님이 방법 같은 걸 못 대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얘기를 들으시기만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시면 그냥 들어주시고,

2) 상담자에 대한 기대

① 진솔함을 바탕으로 한 신뢰로운 태도

- 사례 2) 마음이 많이 닫혀있잖아요, 상대에 대한 경계를 풀고 다가갈 수 있도록..
- 사례 4) 대화할 때 무조건 긍정적으로 들어주고, 믿음주는 게 힘들죠, 사람이란 게 대부분 어머니한테 상처를 꺼내는 이유가 어머니가 믿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잖아요.
- 사례 5) 진심 어린 행동이 필요하고, 항상 웃는 얼굴? 우선적으로 웃지 말고, 웃는 게 아니라, 진심이 필요해요, 진심으로 다가가야 하고, 한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게 쉬운일이 아니죠.
- 사례 10) 상담선생님이 조금 부드러우면 애들이 마음을 열고 하고 싶었던 거 다 말을 해요, 애들이 자기 하고싶은 거 말하면 적극적으로 찬성해주지만 차근차근..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 애들이 싫어해요.

② 문제 해결사의 역할

- 사례 1) 안 받는 것보다 해결책이 있을 것 같고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은 모르겠는데 정신 상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 사례 4) 상담하는 사람의 고민이나 이런 걸 풀어주는 거 겠죠, 상담자가 조언을 해주거나..
- 사례 5) 상담원은 이해해주고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해결방법을 딱 제시하기보다는 대화로 풀어나가면서 해결시켜주는 것 같아요.

3) 상담의도: 높지 않음

- 사례 4) 저는 별로 (상담) 받아보고 싶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자존심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파서 상담해주세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 사례 5)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담을 자발적으로 원하지 않죠, 잘..
- 사례 7) 저는 상담은 별로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일단 상담하면 맘은 안정될 것 같아요, 근데 비밀같은 건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사람이니까, 저는 상담은 안 하는 편이에요.

4) 상담의도 저해 요인

① 자기 개방의 어려움

- 사례 2) 제가 얘기를 많이 안 하는 편인데요, 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힘들다 그러지 않는 편인데..
- 사례 4) 숨긴다고 봐야죠, 털어놓는 걸 힘들어 해요, 북한 사회자체가 개방적이지 않잖아요,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금지가 많잖아요..
- 사례 6) 대부분 상처가 있는데 상담으로는 말할 수 있는 상처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말할 수 있는지, 비밀스러운 부분이면 말할 수 없잖아요..

② 타인에 대한 신뢰감 부족

- 사례 4) 사람이라는 게 성향이 이런데 도와준다 하면 결국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이 부족하죠,
- 사례 6)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비밀스러운 게 아니면, 근데 진짜 말 못할 사정은 정작 상담선생님하고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비밀 보장이 되도 그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제 친구가 진짜 힘든데 상담사도 필요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언제 봤다고 믿냐, 보장한다고 말하지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이 쓰이고..
- 사례 7) 근데 비밀같은 건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사람이니까, 저는 상담은 안 하는 편이에요..

③ 북한에서의 상담 및 심리치료 문화 경험 부재

- 사례 1) 치료를 못하죠, 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주사도 개인이 이렇게 배워가지고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맞추고 해야 하니까, 정신문제는 훨씬 어렵잖아요, 북한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고, 상담이라는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 사례 3) 북한에서 상담이란 말을 못 들어 봤어요..
- 사례 7) 치료같은 건 없어요, 우리 동네에 한 명 있었는데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굉장히 머리가 좋았는데, 엄마가 교사인가 그래요, 애를 업고 다니다가 떨어져서 머리가 장애가 생긴 거예요, 26살인데 뛰 어다니면서 아가씨들 보면 돌 던지고 만지고 그런 행동 하면 그러겠거니 해요, 막 어떻게 몰지 않고, 특히 다르게 생각하는 거 없어요, 치료나 그런 거 없어요..

5) 선호하는 상담방식

① 개인상담

- 사례 6) 일대일로 하는 게 집중력도 생기고, 사람이 많다면 아무래도 소홀해지니까, 일대일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 사례 8) 자기 비밀을 조심스럽게 나눌 수 없잖아요, 불편하더라도 개인적으로..
- 사례 9) 개인상담, 집단상담은 진실된 얘기를 못 해요, 재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도 고민되구요, 개인상담이죠..
- 사례 12) 일대일이 편하죠, 내 얘기를 상담 얘기를 다른 사람이 듣잖아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 비밀이 그런거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잖아요,

② 매체를 활용한 상담

- 사례 3) 그림 치료 같은 거 되게 신기했어요..
- 사례 11) 특별했던게 그림으로 심리를 파악하는 거였더라구요, 미술치료처럼, 그림으로 그려서 그림을 그냥 그렸는데 맞추시더라구요, 말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조용하게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심리상태를 보는 것도 괜찮더라구요..
- 사례 12) 미술치료는 그림으로 하니까 그림으로 다 표현되고, 셈이 이거는 무슨 마음이 뭐가 있네요, 얘기해주고, 얘기해주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부록3. 시범교육 평가지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개입 프로그램 평가지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을 돕기 위해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교육,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이 설문지는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응답해주신 결과는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힘드시더라도 한 문장도 빠뜨리지 말고, 솔직하게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각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골라 O표 해주십시오.

지 표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육 내용이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 목적에 부합하는가?	1	2	3	4	5
2. 교육 내용이 북한 이탈 청소년 상담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이 되었는가?	1	2	3	4	5
3. 교육 내용이 상담자 연수과정 운영으로 적절 한가?	1	2	3	4	5

지 표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교육 내용이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에 필요한 요소로 구성되었는가?	1	2	3	4	5
5. 교육 내용이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자들의 관심과 동기를 끌어낼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가?	1	2	3	4	5
6. 전체 내용 구성이 북한 이탈 청소년 상담에 도움이 될 것인가?	1	2	3	4	5

* 구체적인 프로그램 항목별로 도움이 되었던 정도를 골라 O표 해주십시오.

지 표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황 및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의견 :					
2. 북한이탈 청소년의 주요 적응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의견 :					
3.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 개입의 원리와 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의견 :					
4. 북한이탈 청소년의 대인관계기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2	3	4	5

지 표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의견 :					
5. 북한이탈 청소년 상담개입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의견 :					
6. 북한이탈 청소년 사례에 대한 문제영역 별 접근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의견 :					

*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의 현장 활용도에 대하여 아래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영역에 0표 해주십시오.

지 표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본 상담프로그램 개발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2. 본 상담프로그램 개발 목적에 맞게 잘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3. 본 상담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활용되기에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4. 본 상담프로그램을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적용할 경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5. 본 상담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활용된다면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아래 칸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 프로그램의 좋은 점</p>	<p>* 프로그램에서 아쉬운 점</p>
---------------------	-----------------------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Development of the Manual for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ABSTRACT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has been increased for many years, and approximately 20 thousands of North Korean refugees live in South Korea. As the number is enlarged, the number of children and adolescent refugees from North Korean has also been increased.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es, a lot of them have suffered from anxiety and inferiority, and been maladaptive because of identity diffusion. The rate of school drop-out is higher than normal students in South Korea. It is especially needed to offer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social and political supports since they have difficulties during not only the developmental process but also adapting to the new society which is culturally different from the society they used to live. Considering increasing tendency of the number of adolescent refugees from North Korea and the future of them as members of South Korean society, it is a high time to develop counseling manual focusing on their healthy development.

This study attempts to develop an intervention manual for youth refugees from North Korea, reflecting their psycholog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That is, to help them to attain developmental process as well as cultural adaptation, and to let them psychologically and socially grow, a practical intervention manual is developed. The following is the research objectives. First, counseling needs of adolescent refugees from North Korea are investigated and depths interviews with professionals are held to draw components of the program and the intervention manual is developed. Second, evaluating the program by professionals and supplementing the contents of the program.

The process of study development consisted of planning, organization, execution and evaluation. In the planning stage, investigation of current situation, psychologic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and examination of programs designed for adolescent refugees from north Korea to understand principles of effective programs

were proceeded. Furthermore, 11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experts and practitioners were interviewed in depth. In addition to that, 12 adolescent refugees from North Korea, the beneficiaries of the manual, were interviewed in depth, and the results were extracted; program components for social adaptation, and main contents that counselors should consider during sessions. As a result, developing a program regarding improving personal relationship skills is considered as a topic which fits the needs of the professionals and the adolescent refugees from North Korea. Therefore, this study team decided to develop personal counseling manual for the improvement of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he organization stage, the following four components were extracted through the results of interviews and examination of previous researches, and they were reflected in developing the program. First of all, counselor's competence about backgrounds and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refugees from North Korea is more important than any, therefore orientation for improving competency is needed. Second, as a degree of adaptation is varying according to how long they have lived in South Korea, participants of the program should be chosen considering the period of living in South Korea. The program is designed for adolescent refugees who have lived less than three years in South Korea. Third, reflecting on the variety of issues, this study intended to offer not only a list to explore the area of urgent issues but also tips regarding counseling approaches accordingly. Lastly, this program is based on the cognitive behavior approach. Dysfunctional thinking will be explored and corrected. Also, practical learning of social skills to improve personal relations competence and successful long-term social adaptation were added. The first draft of the manual was based on these four components, and adolescent refugees from North Korean helped the revision of language in the manual to improve readability and intelligibility for recipients of the program.

In the execution and evaluation stage, pilot education was held targeting 18 counseling practitioners and professionals, and the evaluation and specific ideas were collected. The participants graded the timeliness, purposefulness, usefulness, utility, and practical contributions of the manual after pilot education, and the mean of the result

was 4,6 out of 5,0. Putting opinions which the experts offered together, the study team completed the manual with the help of the academic specialists.

This study passed through the procedure and process to develop the program manual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refugees from North Korea. It was possible to seize the practitioners' experiences and their needs as well as that of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Therefore, various insights and suggestions were provided regarding understanding adolescent refugees from North Korea and a therapeutic approach for them. It is expected that this counseling program will be a practical guide of counseling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Further researches should be followed in order to evaluate and revise the program.